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Vol. 60 [2009'SPRING]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전화(053)602-5113 전송(053)602-5120
<http://council.gb.go.kr>

| 열린의정구현 |

도민의 참 뜻을 실현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경북 의정활동



독도 갯이갈매기의 모정

개 회 사

300만 도민에게 비전을 주고, 밝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새봄과 함께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지역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을 주는 풍요로운 경상북도 건설과, 올바른 인성 및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제18대 국회 개원으로 우리 모두의 기대가 컸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지구촌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국내경제 역시 사상초유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각종 경기 지표가 앞길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하락과 고용률 둔화가 민간소비 급락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경제 위기의 여파는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들은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 서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연초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 살기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는 재난과 위기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가뭄과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잦은 기상이변과 함께 한반도는 서서히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구온난화가 우리 농업과 임업·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황사는 단순한 모래바람이 아니라, 중국공장지대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눈과 호흡기, 피부건강 등이 크게 우려가 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도민의 보건위생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등에 의해 소중한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시스템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마다 봄철 해빙기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질문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해 첫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준비가 남 달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보며 세심하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출범 4년 차를 맞는 제8대 경북도의회가 더욱 활기차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사상 유례없이 3월에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을 최우선 생각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일자리창출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300만 도민에게 비전을 주고, 밝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고난을 이겨냈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역동적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24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이 상 천

|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

제 231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31회 임시회는 2009년 2월 10일 11:00 개회하여 2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2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2월 10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백천봉 의원, 권영만 의원)을 청취한 후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 휴회기간인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손진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상징건축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의결하고 제231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 232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32회 임시회는 2009년 3월 24일 11:00 개회하여 4월 7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24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3월 24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정경구 의원, 김종천 의원)을 청취한 후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 휴회기간인 3월 25일부터 3월 30일,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건 20억원(토양환경개선지원사업), 세출예산 3건 54억 500만원(행복재단설립 25억원, 중앙부처전입공무원 숙소구입 4억 5백만원, 토양환경개선지원사업 25억원)을 삭감하고, 차액 34억 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화)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 교육감 권한대행,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이재철 의원, 손진영 의원, 박진현 의원)을 하였다. 한편,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분리지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의약품단지와 의료기기단지를 분리 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당초 계획대로 조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 제3차 본회의는 4월 1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권한대행,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권영만 의원, 김지수 의원, 김영만 의원)을 하였으며,
- 제4차 본회의는 4월 7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조동만 의원, 최윤희 의원, 박순열 의원, 전찬걸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잡종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32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한편, 이날 구성된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필각 의원, 부위원장에 장두옥 의원이, 도청이전 지원 특별 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현준 의원, 부위원장에 정경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 경제살리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경제 및 4대강살리기지원특별위원회로 명칭변경(2009. 5. 21)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 등 55명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은 2월 10일 경상북도청 강당에서 「위기탈출을 위한 대책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 이상천 의장은 3월 5일 의장실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 간담회를 열어 경제살리기지원특별위원회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및 도청이전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상천 의장은 2월 26일 제90주년 3.1절을 앞두고 포항·경주 지역에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상천 의장은 3월 1일 영해면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3.1운동정신을 기리며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상천 의장은 3월 17일 영천시 고경면 고암리에서 2009 봄철나무심기행사에 참석하여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상천 의장은 3월 11일 경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09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녹색 생활실천결의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에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상천 의장은 3월 20일 사이버독도 개점식에 참석하여 관계관을 격려했다.



▶ 이상천 의장은 4월 9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준공식에 참석해 부품연구원 출범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 이상천 의장(전국시도 의회의장협의회장)은 3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전국시도의회 협의회를 열고 지방분권 관련 현안을 협의하였다.



▲ 이상천 의장(전국시도 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4월 9일 경북도의회에서 전국시도의장 협의회 제2기 정책자문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이상천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은 3월 21일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의장, 국무위원 합동 워크숍에 참가하여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이상천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은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주관 지방4대협의체 대표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방간의 상생협력과 소통강화를 위한 정책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 이상호 부의장은 3월 10일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된 농촌 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농민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김응규 부의장은 3월 20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09세계 물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미래를 대비한 물절약 운동의 생활화를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에서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월 10일 본회의 부터 인터넷을 통한 첫 수화통역 방송을 실시하였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타시도의회운영과 특수시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어려운 경제난에 도민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적극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의회소식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200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금융 불안으로 세계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제위기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주문하였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영양풍력발전 단지, 영덕태양광발전소 및 포항지능로봇연구소, 포항가속기 연구소 등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및 국가미래 사업을 선도할 첨단산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추진의 애로점 등을 파악하였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집행부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포항시 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시설운영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



▶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질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포항시와 영덕군 가뭄현장을 방문하여 용수원 확보대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2009년도 업무 보고에서 FTA를 대응할 수 있는 돈되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강력한 시책을 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울진엑스포공원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회소식

▶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받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경산일반산업단지내 유망중소기업체와 구미 국가4단지내 입주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경북혁신도시 김천 현장을 방문해 공사추진 상황과 지역민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경주 기림사에서 실시한 도내 주요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참관하고 격려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지속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기를 앞당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심의하였다.



▶ 경상북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 송필각)



▶ 경상북도의회는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 이현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방유봉 위원장(울진)



박병훈 부위원장(경주)



고우현 위원(문경)



권영만 위원(봉화)



김만용 위원(의성)



김숙향 위원(비례)



김영택 위원(구미)



남종식 위원(청송)



박노옥 위원(봉화)



박영화 위원(고령)



윤영식 위원(예천)



이재철 위원(상주)



장정식 위원(포항)



정경구 위원(안동)



최윤희 위원(비례)

Steering Committee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위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의 처리를 위해 제232회 임시회 회기를 3. 24 ~ 4. 7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였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본회의 생방송 수화 통역자의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도록 인원보강을 주문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회의일정, 회의록 등 게시물의 적기 게재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정립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의원 해외연수를 소그룹으로 편성 전문분야별로 시행하여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조기에 이수하게 하여 능동적인 자치입법을 위해 지원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하였다.

이어서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 어려운 경제난에 도민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경북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에 힘쓸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의회가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과 각종

투자유치 및 경제지원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 가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 간담회에서 55명 전 도의원이 동참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월정수당의 2%를 반납하기로 결의하였고,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5%와 연가보상비 2일분을 감액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비 확보에 동참케 하였다. 또한, 경북발전의 백년대계인 도청이전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를 비롯한 전 도민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때이므로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하여 정치적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자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 가결하였다. 아울러 타 시·도의 의회운영과 특수시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도 의정활동에 접목하기 위하여 2009. 3. 18 ~ 3. 19(2일간) 부산광역시 의회와 경상남도 의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타 시·도 방문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의회의 주요시설을 둘러보았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방문 분뇨투기장, 쓰레기매립장에서 철새들의 낙원으로 탈바꿈한 을숙도 생태계 복원의 사업추진 과정과 향후 생태공원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부산과 경남의 주요시책 현장을 방문하였다.



2009년도 도정주요업무보고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이상태 위원장(울릉)



장경식 부위원장(포항)



나규택 위원(고령)



박진현 위원(영덕)



손덕임 위원(비례)



이상용 위원(영양)



이상효 위원(경주)



정경구 위원(안동)



황상조 위원(경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 2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소관부서로부터 도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세계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업무보고 첫날인 2월 11일에는 기획조정실, 새경북 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10년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 예산조기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을 위해 원가심사제도를 확대할 것과 일자리 창출 등 도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강조하고, 도청이전 후 현 청사부지 활용계획과 대구광역시의 신청사 건립발표와 관련 사전협의의 필요성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방안 모색 및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한 도비보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도청이전 신도시의 사업 등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둘째날인 2월 12일에는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경제과학진흥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영상콘텐츠 구축과 IPTV 시스템구축 사업의 동시발주 및 최근의 행정구역개편과 도청이전 추진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전문직 강사진 구성과 교육내용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의 시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쟁력있는 품목을 육성하는 등 특화된 시장을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뛰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더욱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한해동안의 연구실적과 경북에서 의뢰하는 용역현황 등을 질문하고 대구·경북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주문하였다.



안전심사에서는 2008년 3월 28일 제정 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및 도청이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용어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다.

한편, 2009년도 첫 의정활동으로 도서지역으로써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부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울릉도를 3일간(1. 15 ~ 1. 17)에 걸쳐 방문하여 울릉군 신재생에너지 육성지원실태 현장을 확인하였다. 이 기간동안 울릉군수로부터 군정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태와 여건 및 당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울릉일주도로 신설사업, 현포풍력발전 현장,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 안용복 장군 기념관건립사업 등 대규모 사업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죽도풍력태양광 발전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관광객 유치 및 도동항 신시장 조성 실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한 위원회의 현장확인을 통해 울릉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에너지원의 이용실태에 대한 수급현황과 현장 확인을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정책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의회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2. 16 ~ 2. 18까지 현대인재개발원, 중앙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원도인재개발원을 방문하여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편의시설 등을 살펴보고, 대구시에 소재한 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이전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등 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과 의회차원에서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서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3. 24 ~ 3. 25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하였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반영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경기진작, 서민 생활안정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농어촌 초등학교 청년영어교사채용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추경예산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사업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안전심사에서는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사무인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수산업지도기능과 지식경제부 소관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시·도 이양 및 고령소방서 신설에 따른 정원채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말 산업육성 및 경상북도 지리정보포털시스템 구축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4.2~4.3까지 이틀에 걸쳐 영양풍력발전단지 및 영덕 태양광발전소, 포항에 소재한 소천문화관 시설현황을 둘러 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현황과 애로점을 파악하고, 포항지능로봇연구소,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를 방문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태, 운영방법, 기업지원현황과 성과사례 및 지역 파급효과 등을 청취하고, 도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첨단산업 지원시책과 함께 향후 계획을 파악하여 의회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포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현지방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이시하 위원장(문경)



권영만 부위원장(봉화)



김대호 위원(구미)



김수용 위원(영천)



김숙향 위원(비례)



김종천 위원(영주)



송필각 위원(칠곡)



윤창욱 위원(구미)



이우경 위원(경산)

조사결과 2007년도에 상위권에서 2008년도에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이에 따른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이 '감사가 두려워 일 못한다'는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등 복지부동 자세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감면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서는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으로 시군별 1개씩 23개 시군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1개교에 43백만원씩 균등배분하여 지역중심학교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지 질타하고 지역중심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지난해 칠곡군 모이장이 반상회 회보 배부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급사한 사향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이장 업무를 보았지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시군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통·이장의 수당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취득이 쉬운 관계로 자격 미달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다. 그리고 농어촌보육교사 지역별 차이 문제,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경로당 활성화, 막대한 보건복지 예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등을 지적·촉구하였다.

이외에도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도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기축년 새해 첫 임시회(제231회)에서

-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업무계획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의 평생학습 욕구 증대에 부응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 경주 용강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을 방문하여 시설과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복지시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반영하였다.

특히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가운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복지전문기관의 현황을 파악·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지역주민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첫 날인 2월 17일 현지방문에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론과 함께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예산지원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둘째 날 2월 18일에는 경주용강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별 확충건립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서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정책 목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마련한 것인 바, 편성된 예산이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한 톨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복지사각 지대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514개 단체에 대하여 선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주문하였다. 그리고

중앙부처 전입공무원 숙소구입비 계상은 중앙부처와 우리 도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도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는 부적합 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경북도립대학 업무보고에서는 경북도립대학 입학생들의 수능 등급이 낮은 수준인데 도립대학으로서 특성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유아교육과와 행정복지계열 등에서 교수별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학과 통폐합 또는 신설 등으로 전공에 맞지 않는 교수들을 퇴직시키지 않고, 학과에 맞는 전공교수들을 채용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특히,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타 시도 관련 기관의 현장방문과 사례연구, 관련 기관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집행부의 협의 등을 거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며, 「경상북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발의한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도립의료원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행정, 보건복지분야의 주요 사업과 현안문제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지켜 보면서, 개선방안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경상북도 안용복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심사



백 천봉 위원장(구미)



김만용 부위원장(의성)



권인찬 위원(안동)



김영기 위원(청송)



김응규 위원(김천)



김지수 위원(성주)



박순범 위원(철곡)



전찬길 위원(울진)



채옥주 위원(비례)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환경해양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도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고 협조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2009년도에도 보다 나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환경해양산림

국 소관 경상북도 안용복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에서 본조례(안)는 재단의 사업계획 및 결산 부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0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기간을 ‘재단의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에서 ‘재단의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로 수정 가결하였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경상북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본조례(안)는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 현행대로 「난치병 학생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유보 결정하였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 본조례(안)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주민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개정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의에서 본조례(안)는 금릉공공도서관을 지례초등학교 학교도서관으로의 체제 전환은 기관의 효율적 관리·운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본조례(안)는 기존 조례상 사용 및 대부 목적에 따라 최고 100분의 50에서 최저 100분의 40까지 차등하여 적용하던 것을 개정 조례안에서 사용 및 대부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판단하여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를 살려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7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60, 기타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본조례(안)는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경상북도내 농산어촌 지역’으로 설정하여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본조례(안)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교육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교육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타당하고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한편 극심한 겨울가뭄 해결을 위해 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와 영덕군 가뭄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섰다. 이번 방문은 겨울가뭄 사태가 계속되어 극심한 생활용수난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 생활 실태와 급수대책 추진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가뭄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날인 16일은 먼저 영덕군청 회의실에서 김병목 영덕군수로부터 가뭄지역 식수대책 추진상황을 들은 후, 영덕읍 화계리 오십천 취수 상황을 확인하고, 제한 급수 지역인 창수면 보림리 일반관정 개발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했으며, 둘째 날인 17일은 포항지역의 오천읍 갈평취수원을 방문하여 용수원 확보 대책 추진상황과 주민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집행부와 함께 가뭄해소를 위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서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 교육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이 당초예산 4,606억 7,500만원의 6.2%인 286억 2,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4,893억 300만원이고, 세출 예산이 당초예산 5,599억 3,400만원의 6.0%인 338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5,938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금의 추가·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가뭄 대책과 일자리 창출 등 당면 현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건 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경기 진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초과근무수당 583만원과 연가 보상금 1,662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일부 절감분 2,245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2조 5,212억 4,700만원의 7.2%인 1,803억 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2조 7,015억 5,400만원으로 매우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의 반영과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불과 몇 개월만에 증액 또는 감액 하는 신중치 못한 예산편성이 일부 있었으나, 2009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 목적이 지정된 목적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고,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지방교육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여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고심한 점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본 조례(안)는 지난 2008년 9월 22일 도 조직 개편에 따라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을 폐지하고 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을 설립하여 그에 따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적절히 조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잡종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에서 본 동의안은 관련법규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안)은 문맥상 명확치 못하고 불분명한 부분과 표기의 오류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경상북도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에서 본 조례(안)은 1998년도 이후부터 본 교육과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본 조례(안)는 조례 제정목적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였던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개정으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본 조례(안)는 초과현원은 발생하지 않아 강제감축은 없으므로 정원감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 경상북도 23개 지역교육장과 지역교육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역학교와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교육장들의 그동안 열의와 노고를 격려하고, 현행 교육제도의 일선 현장에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앞으로 교육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장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지역교육장에 대해 우리 경북의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도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하였다.

2009년도 첫 업무보고 청취 및 가뭄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현지확인 활동과 전국의회 처음으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제안



김영만 위원장(군위)



박노옥 부위원장(봉화)



남종식 위원(청송)



박기진 위원(성주)



윤영식 위원(예천)



이종원 위원(상주)



이준호 위원(청도)



정무웅 위원(울릉)



조동만 위원(영양)

대응경북농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와 농촌자원을 활용한 획기적인 소득기반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 축산업 위기에 대응한 안정 성장기반 확보, 청정바다 자원 개발로 살기 좋은 어촌 건설 등에 강력한 시책을 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도 경북쌀명품 · 안정생산 기술 시범 확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 국제 경쟁력이 높은 특화작목 육성, 농산식품 산업화 기술개발 등에 업무를 중점 추진하여 개방화 시대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기술개발과 보급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월 17일부터 2월 18일 까지 2일간 도정 현장인 가뭄이 극심한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관정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를 격려하고, 이어서 비안면 산제리 산제지 준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물가두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동절기 시설하우스 토마토 재배 현장인 문경시 소재 한아름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2월 18일에는 안동시 풍산읍소재 안동청과물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공판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사과 등 소포장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하였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먼저,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 2월 11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수산국 업무보고에서는 FTA 대응 「돈되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변화에 대응한 「지역 농어업 안정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정책목표를 두고 FTA

이어서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 먼저, 3월 25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정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하였다. 농수산국의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4,087억 1천8백만원보다 4.7% 증액된 4,279억 3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임직세외수입은 100% 증액된 12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 예산 4,086억 9백만원보다 4.4% 증액된 4,248억 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277억 9천9백만원 보다 5.0% 증액된 5,541억 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토양환경제지원사업 25억원을 삭감한 총 5,516억 2천3백만원을 수정 가결 하였다. 농업기술원의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143억 7천5백만원 보다 5.8% 증액된 152억 1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6.3% 증액된 142억 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한편,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할 것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의 제정 사유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협정(FTA) 등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국제교역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농수산물의 국내시장 거래 확대로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위축 및 가격하락과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농가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농어업 수출 농수산물 유통활성화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국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처음 발의하여 가결시켜 본회의에 농수산위원회 제안으로 이송하였다.

그리고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4월 2일 첫 날 해안지역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되고 있는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 부추작목반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오후에는 2009년 올진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현장을 방문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그간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차질 없는 준비와 점검을 당부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 하였다.

이튿날인 4월 3일에는 영천시 대창면 소재 경북대학교 포도 마을(주)와 대창면 대재리 일원 한해상습 지구를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4월 7일에는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 위원회와 농과계 대학과의 간담회(농수산위원 9, 각 대학 전담교수 9, 관계관 5)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FTA 등 개방화시대에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 전문 CEO의 체계적 육성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발의 및 도내 중소기업체 방문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한혜련 위원장(영천)



이재철 부위원장(상주)



박병훈 위원(경주)



박순열 위원(청도)



방유봉 위원(울진)



백영학 위원(김천)



안순덕 위원(의성)



장세현 위원(포항)



최윤희 위원(비례)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기축년 새해 첫 임사회를 맞아

●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특히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기침체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해인 만큼 공격적인 투자유치와 찾아가는

기업지원 활동, 그리고 체험과 테마가 있는 관광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먼저 안전심사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빈곤·소외 계층과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간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경제는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날로 침체되어 갑에 따라 장애인,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간병, 가사지원, 복지서비스 등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한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소외·취약계층에게 최저생계비 등 지원보다는 일자리 보장 등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최소한의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이들에게 간병, 가사지원, 방과후 지도, 복지서비스 등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코자 이제 사회 각처에서 논의되는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통상문화위원회 발의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소외·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주타워 완공을 계기로 향후 문화엑스포 행사 개최 및 상시 개장을 위해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경주엑스포 공원이 종합문화테마파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무상사용 허가의 건을 가결하였다.

이어서 집행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와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는 기업지원 활동, 그리고 실직, 청년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업자 취업교육, 청년인턴 등의 확대 추진 등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의 경우 조기집행, 잡채어링 등으로 단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임시직 형태의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 위주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관광산업은 미래 녹색 성장 동력산업으로 국가간·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따졌으며, 요즘의 관광은 테마가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며 다양하고 색다른 먹을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테마와 체험위주의 관광마케팅을 강력하게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경기침체로 실의와 시름에 빠져 있는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예술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이어 기업체 방문 등 현지확인에서는 2월 17일 지난해 11월 영천에 신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한 문화재연구원을 방문하여 업무추진현황 파악과 김천 혁신도시 문화재 시·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재 발굴현장에 산재해 있는 나무를 벌채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굴취하여 관상수,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2월 18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여 경영실태와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코자 경산의 (주)메가젠 임플란트와 구미의 (주)토타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경영자금

확대와 제품 홍보를 위한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232회 임시회에는

-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예년에 비해 조기에 편성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벌였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줄이고 국비 등 중앙예산은 최대한 확보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중소기업 지원과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특히, 이번 추경심사에서 금회 추경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조기 추경임에도 포항 스틸러스 축구경기장 롤링광고와 한국인성교육연수원 운영비, 종가포럼과 중부들의 생활사 연구용역비는 경제살리기와 무관한데도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따졌으며,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외국인 초청 팸투어와 관광아카데미 운영,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책하였으며, 아울러 국민여가 캠퍼장 조성과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업체 활용방안과 지역주민 고용 등 경제살리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어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인턴공무원제 등은 최근 급증하는 청년실업난 해소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 문제인 취업을 위해서는 이들 인턴사원들이 중소기업의 정직원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턴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발주 공사현장 방문



김기홍 위원장(영덕)



김영택 부위원장(구미)



고우현 위원(문경)



박영화 위원(고령)



손진영 위원(영주)



이현준 위원(예천)



장길화 위원(비례)



장두욱 위원(포항)



장병익 위원(군위)

맞아, 도내 중요 문화재를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보존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도민의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 실시한 경주 “기림사”에 대한 도(道)단위 합동소방훈련 시범을 참관하였다. 이날 훈련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경찰서, 산림청, 한국전력, KT, 군부대, 일반인 등 14개 기관·단체 420여 명이 참여하고, 헬기 3대를 비롯 총 37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방화로 인한 화재발생을 가상하여, 주요문화재의 반출, 화재 진압, 소방헬기 산불진화, 구호·복구활동 등 입체적인 종합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초동대응 태세 및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다시금 도민들에 대하여 문화재보호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문화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무너져 내리게 했던 참으로 비통한 사건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불조심의 파수꾼이 되어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2.13일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공사 현장인 영덕 「삼사 ~ 오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는, 국가 지원 지방도 20호선으로 도시계획도로와 겹치거나 확포장되지 않아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구간은 50년 이상된 편도 1차선인 舊국도 노선으로 시공된 후 현재까지 확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군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으나, 금년말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상공원 해맞이 행사 등 각종 축제시 7번국도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건설현장을 찾은 후 2.16 ~ 2.17(2일간) 건설도시방재국 및 소방본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와 함께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 신년도 업무보고를 뒤로하고 2. 12 ~ 13(2일간)까지 승례문 화재발생 1주년 도내 주요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을 우선 찾았다. 2. 12일 승례문 화재(2008.2.10) 발생 1주년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보고한 주요사항과 조례(안)은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추진하여 줄 것과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이제까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산업단지개발에 장기간(2~3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금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공장수요에 따라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우리 도내의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시상하는 “경상북도 아름다운 건축문화상”을 신설하여 향후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의 옥외광고물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불티가 생기는 설비 등에 사전 화재예방조치를 의무화 하고, 불을 피울 시 사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차출을 오인 출동케 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232회 임시회에는

- 건설도시방재국 및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경북혁신도시건설 및 성주「용암 ~ 선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았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용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으로 세입부문은 4,609억 4천9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979억 4천만원보다 630억 9백만원(15.83%) 증액 세출부문은 6,682억 3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848억 3백만원보다 834억 2천7백만원(14.27%)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 소관으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은 1,597억 8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06억 9천9백만원보다 9억 1천2백만원(0.57%)이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 계획 변경과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원안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4. 2 ~ 4. 3(2일간) 경북혁신도시(드림밸리) 현장과 성주「용암 ~ 선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집행 추진현황과 지역민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도정 및 의정에 반영하였다. 혁신도시 현장에서 김기홍 위원장은 혁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특목고나 자사고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13개 이전기관중 아직 이전확정을 결정하지 못한 5개 기관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내 이전협약 등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성주「용암 ~ 선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는 설계도면상의 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예정에 없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를 이용하여 V형측구 타설시에 채취한 28일강도 시료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조기 완공을 하여 줄 것과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심의



이우경 위원장(경산)



김영기 부위원장(청송)



김영택 위원(구미)



나규택 위원(고령)



박기진 위원(성주)



박순범 위원(칠곡)



안순덕 위원(의성)



이상용 위원(영양)



이상효 위원(경주)



이시하 위원(문경)



이종원 위원(상주)



이준호 위원(청도)



장병익 위원(군위)



장세현 위원(포항)



채옥주 위원(비례)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불황을 타개 하기 위하여 예년에 비해 시기를 앞당겨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실시하였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동안

-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여 경상북도는 행복재단 설립, 토양환경개선지원 등 54억 5백만원을 순삭감하여 가결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은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 8,157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 5,766억원보다 2,391억원(5.2%)이 늘어났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5,212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7,015억원 대비 1,803억원(7.2%)이 증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는

-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진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 살리기와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봄 가뭄 대책 및 재해 예방, 농어촌 경쟁력 강화사업과 SOC분야 마무리 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400억원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당초 250억원에서 150억원이 많은 규모로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해서라도 중소기업 지원과 도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채 추가발행을 협의한 것으로 도의회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향후에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살피는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 강조



송 필 각 위원장(철곡)



장 두 욱 부위원장(포항)



김 대 호 위원(구미)



김 지 수 위원(성주)



박 명 훈 위원(경주)



한 혜 련 위원(영천)



황 상 조 위원(경산)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필각)는

● 경북도의회 경제살리기지원 특별위원회는 4월 7일(화)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7명)을 의결한 후 13:40에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8대 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철곡출신의 송필각 위원, 부위원장에는 포항출신의 장두욱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경제살리기지원 특별위원회 송필각 위원장은 선임 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의회차원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인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막중한 임무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과 각종 투자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위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지역민과 각계각층의 고견들을 많이 듣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 경제살리기지원 → 경제 및 4대강 살리기지원(2009. 5. 21)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할 것



이현준 위원장(예천)



정경구 부위원장(안동)



고우현 위원(문경)



권인찬 위원(안동)



김종천 위원(영주)



박노욱 위원(봉화)



박순열 위원(청도)



백영학 위원(김천)



윤영식 위원(예천)



장병익 위원(군위)



조동만 위원(영양)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 경북도의회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는 4월 7일(화)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11명)을 의결한 후 13:00에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8대 도의회 전반기 기획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예천출신의 이현준 위원, 부위원장에는 안동출신의 정경구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이날 선임과정에서 소속위원들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예정지 출신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각각 한분씩만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이현준 위원장은 선임 후 3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임되는데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며, 본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특히, 도청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09년 2월 10일(화) 제23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능력위주의 발탁인사와 적재적소 배치인사가 될 수있도록 개선 촉구

백 천 봉 의원(구미)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백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
와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년 새해 첫 본회의 2월 13일 임시회 바로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 인사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기축년 새해 첫 본회의
임시회에서 또 똑같은 문제를 제기함에 많은 안타까움과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회의 좋은 의견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 지적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고 경북도
발전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인사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언론
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을 보면 2007년 1월, 8월 인사, 2008
년, 2009년 1월 인사에 대하여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 1월 올 기축년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지사께서는 앞으로 있을 간부인사는 능력
위주로 전진 배치할 것이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번 인사를 보면 새경북기획단장은 2006
년 9월 20일 신설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섯 명 째이고 석 달
짜리 단장도 있었습니다. 3개월 5일 근무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환경해양산림국장은 무려 6명 째입니다. 도지사
께서는 만약 도지사를 2년 반 만에 여섯 번이나 바꿨다면
경북도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 것인가 생각본 적이 있으
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은 독도사업, 환경문제
등 산적해있는 중요한 현안사업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이상천 의장님께서 윤정용 전 행정지원국장, 인사
위원장이신 이삼걸 새로 오신 행정부지사, 그리고 김관용
지사께 전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유임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였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1년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교체되었
습니다. 능력위주의 발탁인사와 적재적소 배치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매 인사

때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본 의원뿐 아니라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해가
되는지 묻습니다. 아무리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2년 반 동안 중요한 환경해양산림국장을 여섯 번
바꾼다는 것은 옛장수 가위는 옛장수 마음대로 친다는 것과
별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잘못되어도 매우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이 바뀔 때마다 과장,
계장 이하 공무원들은 매번 업무 보고를 해야 하고 송별회식,
환영회식 등 쓸데없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데 이러
고도 행정의 지속성,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저희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께서 지난번 23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2008년도 국가기관에서 조사 평가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던 분야들을 열거
하면서 그 이유는, 사회변화에 긴밀하게 부응하지 못했거나
간부공무원의 업무파악 부족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
로도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된다면 의회차원에서 경북도민을
상대로 그동안의 경북도의 인사난맥상에 대하여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20년간 방치된 도청이전지 확정,
'88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도청은 자기 지역으로 유치
하겠다는 그런 선거공약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도청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도청이전지 확정, 그리고 노인복지대상 수상
등 참으로 훌륭하게 잘하신 분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저를 알고 있는 도민들은 “야, 김관용 지사. 다음에 한번
더 할 수 있겠나. 꼭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하는 분들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찬성하고 박수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계신 지사께서 이런 문제점들이 확실히
개선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칠것
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국립봉화수목원조성을 바탕으로 2015년 제4차 세계산림대회 봉화지역 유치에 선도적 역할 건의

권영만 의원(봉화)



봉화출신 권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31회 임시회에서 발언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5년 제14차 세계산림대회 봉화 유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구촌의 금융위기에서 출발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혼란으로 인류 생존과 발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200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21세기 국가발전 비전의 주요 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류문명의 큰 흐름이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오늘날

정보혁명시대에 이르렀고 다가오는 환경혁명시대에 대비한 국가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취임한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미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창조를 위해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동력을 통한 신경제 건설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500만개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의 봉화군 유치는 다가올 환경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국립백두대간 봉화수목원은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생태자원 보전과 연구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이 발효된 이후 세계는 자국의 유용식물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희귀 식물종의 60% 이상 현지 외 보전 의무화에 따라 수목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 봉화수목원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2,500여 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올해 68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세계적인 산림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의미와 발전 여건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본의원과 봉화 군민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면서 그동안 유치를 위해 애쓰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은 국립 봉화수목원 조성을 바탕으로 2015년 제14차 세계산림대회를 유치한다면 봉화를 기점으로 한 북부지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산림문화휴양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2015년 제14차 세계산림대회 봉화 유치를 도 차원에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계산림대회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 세계총회와 함께 산림분야 양대 올림픽이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1926년 제1차 로마대회를 시작으로 6년마다 개최되며 세계 식량농업기구를 중심으로 185개 회원국에서 각국 대표, 관련 세계석학, NGO, 임업관련 단체, 관광객 등 50만명 정도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제13차 대회는 금년 10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약으로 BT, ET 산업이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화 추세 속에서 백두대간, 춘양목과 철쭉군락 등 청정의 생물자원과 잘 보전된 생태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봉화지역으로서는 전 세계의 산림문화와 관련한 우수한 선진지식과 정보수용과 교환을 위한 세계적 행사인 제14차 세계산림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회의장, 숙박시설, 열악한 교통 등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드시피 2013년에 완료되는 수목원 시설과 이와 연계하여 조성, 또는 건설되는 많은 시설과 SOC 등을 활용할 경우 세계산림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경상북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개최년도인 2015년까지 6년이란 기간이면 충분한 개최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직까지 세계산림대회 유치를 산림청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유치 심사절차 이행을 위하여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국가유치 결정과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승인,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13차 아르헨티나 대회에서 유치의사 표명, 2011년 FAO산림위원회에 유치신청서 제출, 2012년 FAO 최종발표에 이르기까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일들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행사 유치는 관광객 방문에 따른 경제적 수입, 지역브랜드의 획기적인 제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림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정립 등 세계속의 경북을 알릴 수 있는 최대의 채널입니다.

아울러 이번 세계 유치대회는 대회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많은 성과를 통해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산 면적이 26만 3,000ha의 아시아 최대 식물보호구역인 백두대간과 춘양목, 철쭉군락지 등 산림자원의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 마련, 문화·관광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환경의식 공유 등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지하시어 2015년 제14회 세계산림대회가 반드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마련 촉구

손진영 의원(영주)



영주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손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고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 즉 신빈곤층이 확대되어 가는 등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극복을 위해 모두가 발 벗고 나서는 이때에 우리 경북도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대대적인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을 통한 고통분담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역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늘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층 및 서민들에 대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복지돌이 기동팀을 가동하는 등 도 차원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도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 복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도 단위뿐만 아니라 시군이 모두 참가하는 보다 큰 틀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각 시군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신빈곤층 발굴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도의 저소득층, 노인 등 복지대상자가 70만명에 이르며 전체 도민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긴 하나 복지돌이 기동팀의 전담직원이 5, 6명 정도로 구성된다는 것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와 현장의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점검하는데 처음부터 무리가 따르는 일로 사업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당장 본의원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빈곤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사회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12월에 조사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를 보면 방학 중 결식아동 비율은 전국평균이 6%이며, 결식아동 수가 45만 3,63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우리 경북도의 결식아동 수가 3만 9,998명이고 결식아동 비율이 전체 학생수 38만 4,298명 대비 10.4%로 전국 평균 6%를 상회하며, 전북의 11.2%에 이어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수준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우리 도의 봉화군은 결식아동 비율이 무려 37.7%에 이릅니다. 전체 2,948명의 학생 중 1,110명의 학생이 결식아동입니다. 그 다음으로 군위군이 29.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결식아동 비율이 전국 1, 2위를 경북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도 차원에서의 결식아동 지원대책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끼니까지 걱정해야 하는 학생들로서는 마음의 상처가 뻗속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우리 도에 가장 많다는 현실이, 또한 그러한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본의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 내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급식지원을 통해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물론 도 차원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3월24일(화) 제23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낙동강수질보존을 위해 대구·경북협의회구성 및 낙동강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수립 제안

정 경 구 의원(안동)

안동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초 낙동강 다이옥산 오염사고 여파였는지 김범일 대구 시장님께서 지난 2월 20일 대구시에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해 대구시 상수도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겨 대구 매곡 취수장까지 171km구간을 상수도관으로 연결해 하루 60만톤의 물을 공급받는다라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안동과 예천 상수 구미 등 낙동강 상류 유역권 자치단체와 논의는 물론 낙동강수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었기에 극심한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구체적 이유는 간명합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와 학계에 따르면 갈수기인 요즘 안동댐의 1일 방류량은 약 160만t 인데 대구시가 30%가 넘는 60만t을 가져간다면 하천 유지수부족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유지수가 부족할 경우 식수를 포함한 각종 용수원을 낙동강물에 의존하는 1천만여 명의 전체 유역주민들이 겪을 위기와 혼란을 고려하지 않고 대구시가 자신들의 상수도 개선만을 위해 극히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동댐이 대구시 상수도취수원이 될 경우 댐 일대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돼 담수 후 이미 30여 년간 자연환경 보호구역으로 묶여 온갖 규제를 받았던 안동과 봉화 일부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규제를 받게 되는 등 겹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최근 대구시는 앞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대구시 상수원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개인적 덕담 수준의 견해나 당정협의를사항임을 들어 상수원을 다시 김천과 구미 일대의 낙동강이나 건설 계획 중인 영주 송리원댐으로 옮기는 방안을 흘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정부 관계부처,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업무 연계도, 대책논의도 하지 않는, 실현가능성 희박한 계획만 남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구시의 이런 갈팡질팡하는 행보는 최근 들어 “물 전쟁”이라는 말이 생겨 날 정도로 원활한 용수원확보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자치단체 간의 골 깊은 반목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난맥상도 문제지만 경상북도 또한 무대책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의 거듭된 상수원 이전(변경)계획이 도내 낙동강수계 자치단체와 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정작 경상북도는 여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태도는 댐 주변지역 추가 규제와 낙동강 물 확보문제로 애태우는 안동, 예천, 김천, 상주 등지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에 목말라하는 대구시민께도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94년 폐놀사태 이후 근래에 연이은 [퍼클로 레이트 오염사고], [다이옥산 오염사고], [고령 골재채취장 기름유출사고] 등 대구시 상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켜 대구시민들에게 극도의 수돗물 불신을 초래한 책임에서 경상북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주요 환경사고는 대부분 낙동상 중·상류지역 경북도내 자치단체의 공단 등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것이고 1차적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경북도는 사고 당시만 요란 했을 뿐 재발 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너무 소홀 했습니다. 또한 낙동강수질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해결했어야 할 안동댐 상류 봉화석포 아연제련소 중금속 폐수문제와 임하댐상류 청송·영양지역 하수처리장 건설문제도 지지부진, 세월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정부와 경상북도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자연 친화] 또는 [환경] 으로 포장된 토목사업 계획만 즐비하게 나열 된 뿐 대단위 수질개선사업은 거론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도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낙동강 수질 문제와 대구시 상수원 오염(이전)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거나 엇박자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사안은 항상 맞물려 있기에 본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구·경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고 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물 문제로 빚어진 자치 단체 간 갈등을 해소 하고 풍부하고도 질 좋은 낙동강 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처럼 부산시 상수원 남강댐 취수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부산과 경남이 발 빠르게 정부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남

강댐 물 갈등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것입니다. 낙동강 물은 상수도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낙동강은 죽은 강입니다. 또 그 때문에 상수원을 수 백리 떨어진 상류지역 댐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댐과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낙동강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좋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면 그런 수원을 공급하는 강을 살릴 의무도 있습니다. 영구히 맑고 푸르게 유장히 흐르는 낙동강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3월 24일(화) 제23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북부지역의 응급의료지원체계 부족 해소를 위한 영주도립의료원 설립 건의

김종천 의원(영주)

영주 출신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
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제23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
을 통하여 열악한 북부지역의 응급의료지원체계 부족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에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영주와 봉화지역의 경우는
의료서비스 체계의 부족으로 환자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 있는 도립안동의료원의 경우 이용환자의
88%가 안동시민으로서 도립의료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개원한 안동도립노인병원
320개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도립의료원
내 노인전문병동을 160개병상으로 건립하여 금년 4월 초순
부터 운영예정에 있어 의료서비스의 과잉 또는 중복적인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은 종합병원 3개를
포함하여 82개의 병·의원이 있어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상대

적으로 양호한 반면에, 영주와 봉화지역은 병원 4개, 요양
병원 2개, 한방병원 1개로 매우 취약하며, 특히,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시설 및 의료진이 부족하여 안동, 대구,
서울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번 도정질문 이후

손진영 동료의원과 함께 영주도립의료원의 설립을 위한
주민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서명운동 과정에서 영주와 봉화의 많은 도민들이 의료시설
부족에 대한 민원과 함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체계가
영주지역에 확보되어야 된다는 염원과, 영주도립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주와 봉화지역
도민들의 절실한 염원과 요구가 담긴 2만 1천여명의 서명
서를 오늘 도지사께 직접 전달하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장미달인 대게와 빵게 마구잡이 밀거래에 대한 지도단속 및 보호 대책 촉구

조동만 의원(영양)



안녕하십니까? 영양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동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만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10여일 전 동해안 대게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 모임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대게를 살려고 업소의 수족관을 보던 중 수족관과 그 주위에 연중 잡아서 안 될 많은 대게 암컷 즉 빵게와 체장미달(9cm 미만)인 대게를 불법 포획하여 보관 판매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방치하면 대게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 판단되어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예산 23억 5천만원 중 치어 치게 생산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8억 5천만원이며 순수한 치게에 소요되는 예산이 1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북도에서는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은 암게인 빵게와 체장미달인 대게를 마구잡이 하여 빵게는 마리당 800원 체장미달인 대게는 1,500 ~ 5,000원으로 밀거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업인들이 대게를 마구 잡아 판매를 한다면 대게는 고갈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어업인들이 자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북도의 대게 생산량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생산량

의 85%로서 2007년도에 4,129톤을 2008년도에는 2,554톤을 생산한 것으로 일년 사이에 무려 1,575톤 즉 1/3정도 급감하였으며, 올해 대게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체장 미달인 대게와 빵게를 마구 잡아 밀거래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008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치게 사육에 성공하여 앞으로 어업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업무보고를 듣고 참석한 농수산 위원들은 크게 기뻐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박수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만, 치게의 생산량은 작년에 600마리를 생산하였고 올해엔 5,000마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을 예산으로 환산하면 치게 마리당 3,500원이 됩니다. 빵게 한 마리가 산란하는 숫자는 무려 8만 ~ 10만 마리라고 합니다. 빵게 한 마리가 보호되면 수산자원개발연구소 1년간 치게 사업 보다 약 20배에 해당되는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몰지각한 어업인들이 연중 잡아서 안 될 빵게를 불법포획하여 판매한다면 경북대게의 명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게 축제도 중요합니다. 축제시기가 지나, 5월이 되면 산란기에 접어들습니다. 빵게는 대게가 없으면 다른 어종들에 의하여 대게 아닌 어류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계가 없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어업인들이 길러서 제시기에 잡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7일(화) 제23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구미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은 경북도가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국비 지원 등 대책 마련 촉구

최윤희 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비례대표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최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근대화 60년은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 성장의 표본입니다. 과거 '60년대 국민소득 79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2위에 육박하는 경제대국을 이뤄낸 저력의 중심에는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리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근대화와 경제성장은 우리 경북도에 수많은 역사적 현장을 남겼습니다. 특히, 구미지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며, '한국전자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구미 산업단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1970년대를 관통했던 새로운 차원의 한국사회 정신운동인 '새마을 운동'의 성지들도 우리 경북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고 기념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민의 노력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시도되었다가 지금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1999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기념사업을 전개기로 하고 2000년에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천 950㎡에 국비 200억원을 들여 시작하였다가 2005년 국비 이외에 500억원을 목표로 한 성금 모금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국비지원이 중단되었고, 현재 정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는 등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그동안 논의만 분분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이 2009년 현재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고별장을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몇 년 전에는 박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을 시도하는 등 상당히 의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구미시는 자체적으로 1990년대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관리'에 나서고 있고, 박정희 체육관 명칭변경 및 '박정희로'의 도로명 변경과, 2010년까지 사업비 216억원을 들여 생가주변 7만 7천620㎡(2만 3천여 평)를 공원화하는 사업 추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념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은 우리 경북도에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부 파행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상징적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념사업의 정당성도 한결 배가(倍加)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이, 박정희기념관은 구미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기념관을 여러 시도로 분산할 것이 아니라 고향 구미에 대규모로 신축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념사업의 근본취지를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도가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국비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북지역의 정체성과 위상을 바로세우고 지켜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해안과 기백을 대국(大局)적으로 기리는 국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우리 구미시와 경북도가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가올 우리의 미래가 더욱 비상(飛上)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모두가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역의 정체성을 올곧게 세우고 지켜나가는 길잡이로서도 분명 이 사업은 하루속히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경북도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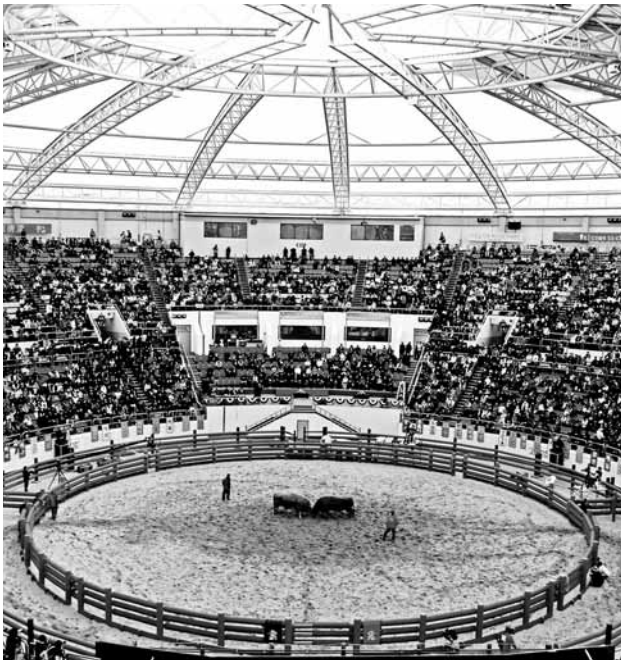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악한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위한 경북도의 초기개장비용 전폭 지원과 레저세 감면 등 적극적 조세제도 개선 건의

박순열 의원(청도)



청도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박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청도는 근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요, 삼국시대 화랑정신의 발상지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역사를 간직한 청도군은 열악한 재정적여건 속에서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오랜 전통인 ‘소싸움’을 특화하였고, 그로인해 ‘청도소싸움 축제’는 개최 때마다 수십만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성공한 지역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도소싸움축제는 ‘2009 대한민국 대표축제 전통문화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청도소싸움축제’가 처음으로 상설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50만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이처럼 청도소싸움축제는 지역관광의 메카로, 우리 청도군과 경북도의 이미지와 브랜드제고에도 상당한 기

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청도군은 독자적으로 수백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지난 수년간 경기장 건설사업비 투자 및 관련 법률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청도군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조건부 청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같은 결정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나 이로 인하여 청도군은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지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상설 소싸움경기장’ 건립은 국비 48억원, 도비 11억원, 군비 28억원, 민간자본 554억원 등 모두 641억원이 투입된 거대 사업입니다. 그러나, 상설소싸움경기장 개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약 90억원의 개장준비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청도군의 재정상황과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재정상태를 감안컨대 재정확보가 너무나 불투명하여 개장을 목전에 두고 좌초될까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엄청난 공공예산과 민간 자금이 투입되고도 이렇게 오래 표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엄청난 손실이며 더 나아가 경북도의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때에 오히려 도차원에서 성공적 개장을 위한 초기투자비용과 운영자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청도군의 부흥에 탄탄한 불씨가 되고 그 부흥이 경상북도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각고의 자구노력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각고의 노력과 함께 경북도의 초기개장비용의 전폭적 지원과 적극적인 조세제도의 개선이 병행

된다면 경영정상화는 멀지 않은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차원의 레저세 감면 조치도 적극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사업의 초기에 일정기간 레저세를 감면하여 지역의 레저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경륜장의 경우, 경기도 남부 레저세율의 50%, 부산·경남 경마장의 경우,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남부 레저세율의 20%, 부산경륜공단은 레저세의 50%를 감면하여 지역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이러한 레저세 감면을 통하여 '소싸움경기장'이 정상운영 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청도군의 재정자립

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북도도 신규 세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Win-Win의 결과를 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힘차게 매진하는 청도 소싸움에서 가뜩이나 어렵고 힘겨운 경제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내와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청도군민과 더 나아가 경북도민의 경제적 위기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북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도민 투표 참여 유도 촉구

전찬걸 의원(울진)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울진출신 전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제23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4. 29일은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거하는 날이기에 도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다른 어떤 직종과는 달리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일만은 외부의 영향이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를 이미 치루었던 타 지역의 경우, 선거가 끝난뒤에도 많은 후유증이 남아 당선자가 소신 있게 교육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 우리 상임위에서도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공직자 선거중립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었고 도 교육청에서도 행정지도와 학교장, 지역 교육장 회의 시 여러 번 강조하여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예비 후보자들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4일부터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각 후보자 진영의 판세에 신경을 쓰고 줄을 대어 가장 때 묻지 않고 순수해야 할 교육까지 출세와 편 가르기의 장이 될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1년 2개월의 짧은 재임기간을 위해 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보존비용 186억원과 후보 1인당 제한비용 14억원 등 총 200여 억원의 법적선거비용은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춰 볼 때 너무나 많은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투표율을 보면 2007년 2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5.3%, 2008년 6월 충남도교육감 17.2%, 같은 해 7월 전라북도교육감 21%, 서울시교육감 15.5%, 12월 대전시교육감 15.3%로서 평균 약 17%의 투표율에 불과했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많은 관심 속에 선출된 교육감은 임기 중 추진하는 정책이나 행정에 힘을 얻어 결집 속에 교육정책을 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정책입안자 편의주의로 교육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과 멀어져 교육정책은 실패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300만 도민이 격어야 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낸 200여 억원의 비싼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인 만큼 우리 경상북도 교육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선택하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마자도 교육의 미래보다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이기주의적,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도민의 이름으로 지탄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근절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간절한 호소가 부디 관철되어 우리 경북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보궐선거가 타 지역 어느 곳 보다 투표율이 가장 높고 또한,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에서도 공정선거를 위하여 보다 더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도민은 모두 한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공정선거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선학교의 공직자는 오로지 학교와 학생의 지도에만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31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농가소득향상과 폐교 활용방안 대책 등

이재철 의원(상주)

질)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대책과 농자재값 안정화 대책,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조치 계획은 ?

답) 농가소득향상대책으로 지역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하여 농민사관학교 기술 및 마인드 향상 교육으로 15천명 농업정예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기업체 유치와 식품가공공장 육성지원 등으로 농외소득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농촌체험관광 기반 구축을 통한 팸투어 확대와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 등을 하고 있음.

농자재값 안정화는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화학비료 가격인상분을 80% 연장지원하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시설원예농가에 123억원을 지원하며 벼 공동육묘장(14개소), 농기계임대사업(7개소), 중소농기계(5,500대)를 공급할 계획임.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은 2009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원으로써 FTA 대책 및 농가경영자금 181억원, RPC 버매입 자금 77억원, 기업형 가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농기업체 지원 등 92억원이며 농어민들을 위해 「원금 상환기간 특별연장」을 실시하고 있음.

질)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조치계획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 대형마트 입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일정한 요건만 갖추고 개설등록하면 대형 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다만, 교통

영향평가 등 간접규제를 통해 최대한 억제토록 할 계획임.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138개소 1,549억원, 5일장 육성사업 88개소 136억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21개소 13억원 지원을 지원하여 시군 중심권 시장 70% 이상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음.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먼저 시장경영선진화 사업으로 상인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상인의식교육을 강화하고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 실시 및 박람회 개최, 지역의 우수상품을 전시, 판매하여 상인들의 자신감과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래시장내 특화상품을 개발 브랜드화하여 문화·관광자원과 연계, 시장 고유의 특산품으로 육성할 것이며 1시장 1특산물 개발로 경쟁력 강화와 공동 마케팅사업과 함께 시장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보기 투어를 통한 재래시장 이용을 촉진,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임.

질) 상주대와 경북대의 통합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유사중복학과 통·폐합만 진행되어 상주캠퍼스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 우려에 대한 대응 입장은?

답) 상주대와 경북대의 통합은 정부의 대학구조 조정 정책에 따라 통합시 재정지원 등 양 대학의 필요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여 2007년 1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으로 이루어 짐(※ 통합일자 : '08. 3. 1).

통합조건 이행 등과 관련하여 통합 1년이 지났으나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유사학과의 통·폐합만 추진되어 상주캠퍼스의 축소 및 지역인구 감소와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하시는데 대해 함께 걱정하면서 대학의 통폐합·폐지 등의

인가와 지도·감독권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있어 공약 세부내용, 대학의 구체적인 이행능력과 방법, 추진경과 등을 도에서 판단하여 조기 이행을 촉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 특히, 유사학과의 통폐합 등은 고등교육법령에 근거 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안임. 앞으로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은 가능한 한 대학 등 관련 기관의 이행계획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진행경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통합 조건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질)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개최와 관련 박람회 전시관 구성, 컨퍼런스, 체험행사, 상징물 설치 계획과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향후 상징물의 활용과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 방안은?

답) 새마을박람회의 전시관 구성은 역사주제관으로 새마을 History Road, U-새마을운동, 해외 새마을 보급, 새마을 명예의 전당, 새마을 뉴스 상영, 유물전시 등이 있으며, 16개 시도, 경북 23개시군관에서는 지자체별 새마을명품 전시를 할 계획이며 희망 나눔관은 농업·산림관, 독도관, 이북5도관, 새마을단체관으로 구성할 계획임.

국제 학술대회는 새마을 운동의 가치와 방향을 학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여 개발도상국의 체계적 발전모델로 새롭게 제시하고 있으며, 체험행사로는 창작오페라, 새마을 정신 체험, 6070세대 공감, 친환경코너 등으로 계획하였음.

외국의 참여를 위하여 새마을 국제 학술대회, 새마을 기본 정신 체험, 다문화 음식관 참여 등과 외국인 새마을연수단 및

외국유학생 1일 현장체험, 새마을 국제대학 수료생 현지 우수 사례 발표, 새마을발상지, 녹색체험마을, 박대통령생가 등 투어로 이루어짐.

전시물 및 상징물 활용과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 도 새마을역사관 특별전시, 영상기록물 보존, 연수생 교육 등이 있으며, 국가 브랜드화로 해외 마케팅 활동 전개, 저개발국 새마을운동 모델 제시로 지구촌 빈곤 및 기아 퇴치, UN 등과 공조하여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정신개혁 운동을 보급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질) 폐교를 예술촌 같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폐교 활용 범위 확대 및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 폐교의 활용 범위 확대와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시달하고 있으며, 대부 및 매각 예정인 폐교 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휴양시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홍보하고 있음.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를 통하여 폐교 재산을 다양하고 특성화된 용도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2009년 3월 31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민생안정 대책과 독거노인 복지 대책 등

손진영 의원(영주)



질) 복지사각지대를 찾는데 도의 전 직원을 각 시군 복지담당자와 공동으로 투입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일제조사 및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 및 복지 전달체계의 누수 방지 대책은?

답)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은 신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누비면서 찾아내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전체 6만 7천여 건을 조사하여 5만 3천여 건(80%)을 발굴하였고, 시군에만 맡겨두지 않고 우리 도에서도 『복지돌이』 기동팀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도와 취약계층간의 결연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음.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호와는 별도로 통합된 지원법이 없어 그 대상을 한정하기 어려워 개별법에 따라 정부양곡 50% 할인 공급, 아동보육료 지급 및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음.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나, 취약계층 의료비 증가와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임.

저소득층 일제조사와 복지 전달체계는 지난 1월부터 저소득층 실태 및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서민일자리 등 대책을 함께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일제 순환배치,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복잡한 전달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음.

질) 노인복지 예산은 규모에 비해 낮은 서비스와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확대로 독거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은?

답)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우리 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15.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노인일자리 제공,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으로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는 일자리의 지속성 유지와 소득 창출을 위해 민간분야 일자리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나 민간기업체의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으며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에 대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자리 창출 향후 계획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일자리 유형별로 시군의 수요조사를 하고, 국비 지원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배정할 계획이며 정부지원 외에도 자체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추가 제공하고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및 시니어클럽을 운영함. 독거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지원 및 관리는 도내 78,665명의 독거노인 중 17,005명 대한 각종 서비스 지원과 생활관리사 685명을 파견 안부확인, 사후관리, 건강음료 배달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1차)시행, 독거노인 2만명에 대한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5,560가구에 안전시스템인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과 가스, 전기 등 센서를 연결하는 자동 U-Care 시스템으로 대체 및 사회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새로운 보호 대책 방안 발굴에 최선을 계획함.

질) 관광객 1억명, 외국인 100만명 유치목표 설정 근거 및 확보방안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면세점 신규 허가 방안은?

답) 관광객 1억명 및 외국인 100만명의 유치 목표 설정 근거는 통상 관광객 증가율 9 ~ 10%대(최근 3년 14.4%)를 감안하면 약 1천만명 증가와 동해안 피서 관광객, 민속문화의 해, 골프관광 등 일본인 관광객 유치증대 등에 기인함.

주요 추진전략으로 도·시군 협의체, 경북관광포럼, 종사자 아카데미 등 특화상품 집중 육성 및 국민 부자되기, 문학관광, 와이너리, 금강송 트래킹, 특산물 투어 등 5대 체험관광 명품코스 개발과 온라인, 신문·TV 등 전방위 홍보추진으로 '관광경북' 파워브랜드 제고 및 일본인(관음성지, 한류스타), 동남아(유교·선비문화) 등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와 면세점 신규 허가를 위해 힐튼호텔 카지노(베니스타 카지노 - 외국인 전용)에 해외 자본(아맥스 홀딩스)을 참여 MOU체결(2007. 10월) 하였으나 현재 국제금융위기로 외국자본 투자 일시 중지되고 있으나 조만간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도내 면세점으로는 울릉도에 면세품 판매장(내국인 면세점)을 추진하고 있음.

질) 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의 출하두수가 낮아 광역브랜드와 지역개발브랜드와 차이가 없으므로 실패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한우광역브랜드의 성과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과 방안은?

답)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은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응하여 '05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120억원 투자하여 생산이력체계 구축(290 농가), 우량암소 핵군조성(3,500두), 전염병 검색으로 위생·안전성 확보, 참품한우 브랜드 판매장 개설(11개소)을 추진하고 있음.

참품한우 브랜드 출하가 부진한 사유는 현재까지 시범 사업 기간 동안은 유통보다 생산기반 구축에 매진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광역브랜드활성화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하여 2017년까지는 10만두 규모로 확대, 전국최고 브랜드로 키워나가겠으며 또한 금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한우산업 조직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임.

경북의 한우가 세계속의 명품한우로 거듭나기 위하여 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전두수 DNA 동일성 검사, 질병검사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참품한우"의 완전한 산업화 추진을 통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2009년 3월 31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불법어업 단속 대책과 상수도 보급률 향상 대책 등

박진현 의원(영덕)

질) 불법어업 현황 및 단속 대책과 동해구 기선 저인망 현황 및 감척 추진계획은?

답) 불법어업은 오징어 성어기(9 ~ 12월)에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이 공조하여 오징어를 불법 어획하는 행위, 대형트롤, 기선권현망, 동해 구트룰·저인망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행위,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포획, 유통, 판매 행위, 소형어선들의 2중이상 자망 불법 사용 등이 있음.

불법어업 예방과 단속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해경 등 합동단속 실시(월1회 이상), 불법어업 단속 협의체 구축(도, 해경, 시·군, 수협 등), 대게사범 등 각종 불법행위 육·해상 분기별 합동단속, 대게 조업구역 분쟁 해소(도 고시제정, '08. 12. 1), 통발어선 연안수심 400 ~ 429m 안쪽 금지구역 설정, 울진군 왕돌초 및 영덕 축산앞 대게보호구역 설정(62 km²) 등이 있으며, 어업인 자율에 의한 불법어업 근절 유도를 위해 명예감시선 지정(17척) 및 우수마을·어업인 포상, 민생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등이 있음.

동해구 기선저인망 감척은 우리 도에서 조업분쟁 및 자원남획형 어업임으로 특별감척 추진을 건의하였으며(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용), 특별 감척을 위해 관계관 및 어업인 협의회 개최(3회), 일반 감척사업과 차별화된 조건으로 추진할 것이며 농림수산식품부, 도, 관련업체, 전문가 등 관계자 협의회 구성 및 트롤 어업은 저인망 감척 후 우선 추진 계획임.

질) 경북북부권의 도로망 확충방안과 918번 지방도를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하는 방안은?

답) 경북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반영하여 상주 ~ 안동 ~ 영덕간 동서6축 고속도로, 포항 ~ 영덕 ~ 울진을 잇는 남북 7축 고속도로, 봉화 ~ 울진간

동서 5축 간선도로에 '09년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향후 주요 도로철도망 확충계획으로는 강릉 ~ 포항 ~ 경주 ~ 울산을 잇는 남북 7축 철도망, 울산 ~ 포항 ~ 영덕 ~ 울진 ~ 삼척간 남북 7축 고속도로, 수도권 ~ 문경 ~ 도청예정지 ~ 대구를 연결하는 중부내륙 고속 철도 등이 계획되어 있음.

918번 지방도는 1995년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1995-196호)되어 노선 연장 108.2km 2차선 포장 도로로 918번 지방도로의 개선을 위하여 918번 지방도의 국도지선지정건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 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승격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질) 도청이전과 관련한 SOC사업 추진 등 후속과제와 도청이전 완료시점과 병행하여 종합연수원 건립 재추진 의향이 있는지와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연계하는 방안은?

답) 도청이전과 관련한 SOC사업 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동서5·6축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사업과 중앙선 복선화, 중부내륙고속철도망 구축 등 네트워크형 교통체계 구축, 광역경제권사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음.

경상북도 종합연수원 건립 추진 경위는 2005. 5. 12. 경상북도 종합연수원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2005. 12. 1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의회) 및 부지매입으로 2007. 10. 8 ~ 9. 타시도 공무원종합연수원 운영실태 조사(도의회 행복위) 시 서울, 경기, 강원 3개 시도가 연수원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적자운영으로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위기속에 300여 억원에 달하는 건립비와 年 20여 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므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향후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종합 연수원 건립을 재추진 검토하고 있음.

공무원교육원 연계이전은 공무원 교육원을 포함한 유관 기관의 이전원칙과 방향은 신도청소재지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전대상 유관기관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유관기관·단체 186개이며 중 대구소재 73개 기관 단체임.

질)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주원인 및 대책과 농산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향상은 ?

답) 도내 강우량을 보면 '08년 도의 강우량이 847mm로 전년도 66%(예년 평균의 61%) 수준이며 '09년 현재 78.8mm로 평년의 70% 수준임.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총 사업비 187억원을 투자하여 관정 개발 114개소, 취수보 등 7개소, 자체 6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영덕정수장은 73억원을 투자하여 취수원 대체개발 중에 있음. 상수도 누수율의 주 원인으로는 우리 도내 상수도관은 총 14,230km로 이중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관이 28%로 4,004km임.

상수도 누수율 저감 대책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을 위하여 국비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추진하는 관계로 교체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20년 이상 노후관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임.

농산어촌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대하여 도시 지역에 비해 지역 여건상 낮은 편이므로 향후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사업 등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 경제위기 상황에서 교육청이 2006년 대비 해외여행 관련 예산이 61% 증액된 것에 대한 견해는?

답) 해외여행 인원과 예산의 증가 요인으로 교육 과학기술부 정책사업인 영어교사 심화연수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영어교사 현지연수로 11억 4천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고, 기타 해외연수는 3억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8억 4천 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향후 해외연수 인원을 16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하고, 절약된 예산(390백만원)으로 국내 대학에서 TESOL 연수 개설하여 연수시킬 계획임.

질) 공로연수자의 국외연수 시행 이유와 향후계획과 지방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제도의 개선대책은?

답) 공로연수자 국외연수 시행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국가에 헌신한 노고를 위로하고, 지역 교육 및 문화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기위하여 공로연수자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국제환율 상승 및 경기 침체로 국외연수를 취소할 예정임.

지방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개선 대책으로는 연수인원 축소 및 성과중심의 연수과정 운영으로 경제적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2009년 4월 1일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세계산림대회 유치 및 승부 매립장 안전관리 대책 등

권영만 의원(봉화)

질) 제14차 세계산림대회 봉화 유치를 위한 지금 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답) 도의 산림분야 역점시책으로 산림자원을 주민생활과 상생할 수 있는 신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백두대간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춘양면에 일대 (5천ha) '백두대간고산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6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2,5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세계산림대회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지구환경 기여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엔의 국제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 (FAO)가 주관하는 대회로써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세계총회'와 함께 산림분야 양대 올림픽으로 불리고 있으며, 세계 60여 개국에서 정부, 학계, 연구기관, NGO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산림·환경 종합 회의이며, 1926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 6년 단위로, 아시아에서는 인도('54), 인도네시아('78), 터키('97)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제13차 대회는 2009년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됨.

그 동안 추진상황은 '08. 9월 제14차 세계산림대회 유치 의사를 표명하여(도→산림청) 산림청으로부터 '10년 하반기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는 회신('08.11.3)을 받고 '09. 3월 세계산림대회 개최 타당성 용역(봉화군)후 도·봉화군 관계관이 산림청을 방문하여 대회유치를 건의하였음.

세계산림대회 유치를 위해 봉화군, 산림청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기획재정부)의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1년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유치신청, '12년 확정될 때까지 유치분위기 조성, 국제무대를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 등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임.

금년 10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세계산림 대회와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임업연구기관 연맹 세계총회가 대회유치를 위한 중요한 무대라고 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임.

질) 봉화 승부매립장 조성경위 및 매립장 사후관리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와 매립장 안전관리 및 수질오염 대책은?

답) 봉화군 석포면 승부매립장 조성경위는 '95. 2. 20. 유진 실업에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을 신청(사업자→ 도)하여 도에서 '95. 3. 31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으나 '95. 4. 15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사업장 허가업무를 이관(도→봉화군)되어, '96. 12. 17 봉화군 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96. 12. 24 사용개시신고 후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하였으며, '01. 11. 15 사용종료신고(사후관리 개시)후 '02. 3. 7 폐업신고함.

매립장 사후관리비용의 도비지원과 관련하여 승부매립장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개인 사업장으로 사후관리비용을 국비나 도비로 지원한 사례는 없으나 낙동강 수질오염원 관리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여 2009. 2월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관할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2010년 예산에 반영 검토토록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국고 보조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비율에 따라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음.

매립장 안전 및 수질오염관리대책은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매립장주변 하천 및 낙동강 유입 지점 등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반기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매립장관리 및 주변환경 오염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질) 농산어촌중심학교, 기숙형공립학교,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경상북도 지역중심학교 등 4개 지원사업의 대상학교가 중복되고, 사업내용이 차별화 되지 않은 이유 및 많은 예산이 같은 학교에 집중됨에 따른 해당학교의 예산집행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답) 지역우수 거점고를 중심으로 기숙형공립고를 선정한 결과 농산어촌 우수고가 많이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되었고 (13개교 중 8개교)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지역중심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중 학력 우수고를 지정한 결과 기숙형 공립고, 농산어촌 우수고와 중복된 경우가 많은 실정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학교는 주로 초·중학교와 영·유아기관이며, 고등학교는 도내 구미정보고 1개교이므로, 중복 지정이 아니며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의 투자내역을 분석하여 기숙형공립고와의 사업비 중복(기숙사 신·증축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농산어촌중심학교, 기숙형공립고, 지역중심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지도 감독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어려움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임.

질)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기반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장애인 교원자원의 확대를 위한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은?

답)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여건 개선으로 장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과 중증 장애 학생 지도를 위한 재택 순회교육 확대 운영으로 특수교육 보조 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절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을 할 계획이며 장애인 교원 자원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교원 양성기관과 연계하여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장애인 교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개선과 장애인 교원 고용율이 3% 될 때까지 교원 채용 인원의 6%를 장애인 교원으로 확대 모집하고 교육 과학 기술부 차원에서 관련 법규 개정 및 장애인 교원 채용 심사 기준 표준화를 건의하겠으며 비장애 학생과의 통합교육 강화하여 장애 극복 및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임.



2009년 4월 1일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인턴제 상설 방안과 귀농인 대책 등

김지수 의원(성주)



질) 일선 기업에 행정인턴 우선 배치에 대한 견해와 중·장기적 측면에서 '인턴제 상설기구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 행정인턴제는 만18세~ 35세 미만 미취업자와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월 1인당 100만원(도비 30, 시군비 40, 기업체 30)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청년실업자는 4개월 인턴, 정규직 채용 시 4개월 추가지원하고, 여성결혼이민자는 6개월 인턴,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추가지원하며, 대상은 172개 업체, 353명(청년 328, 여성 25)으로 2,733백만원(도비 820, 시군비 1,093, 기업 820)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일선 기업에 행정인턴을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인턴제 상설기구화'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2003년부터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행정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인턴과 중소기업 인턴 중·장기적 관리 및 취업 지원 별도 상설 전담 조직은 추후 사업 확대 등 필요시에 상설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음.

질) 청년 실업난 해소 관련 예산을 농촌일자리 창출에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귀농인 지원대책은?

답) 우리 도 귀농 인구는 IMF직후 급증하다가 경제회복으로 감소되었으나 200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이며, 최근 경기 침체로 실업인구 증가 등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농촌으로의 귀농은 도시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순기능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농촌에는 다양한 사회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인력이 공급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에 앞서 귀농정착자금 지원 등 귀농

지원시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 도 귀농가구('90년 이후)는 5,900여 가구(전국 1위)이며, 지난 2월부터 「단계별 귀농지원 종합대책」 마련 시행하고 있음.

향후 귀농을 위하여 농촌에도 젊은 신규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귀농인턴제, 소규모 농기업 유치,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일자리 확충으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귀농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질) 명문종가 선정 기준과 사업추진 시 우선순위 선별 기준, 종가 활용에 따른 상업화 예방대책, 종가관련 학술용역의 객관성 확보 방안은?

답) 명문종가 선정기준은 도내 지정문화재 가운데 해당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는데 종가 범주는 불천위 사당, 가묘가 있거나 제사를 모시는 종가임이며 종가관련 사업추진 시에는 지역별 안배 및 종가별 특성, 상황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토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종가활용에 따른 상업화 및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거주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 종가의 보존·관리에 어려울 뿐 아니라, 공가(空家)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가 거주자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편의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가 고택의 외형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음.

종가관련 학술용역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별종가 단위의 기술을 지양하고 전문연구원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 조사하여 객관적 역사자료를 토대로 사실대로 서술하고, 후손들의 입김이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연구내용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도록 조치하겠음.

질) 전기 있는 마을주변에 전기 없는 마을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전기가 없는 마을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은?

답) 전기 없는 자연회귀마을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느리게 살아가는 조상들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친환경체험 등을 통한 심신치유와 농촌마을 소득창출 목적으로 금년도에 한 두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 하고자 지난해 11월에 경북대학교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지난 3. 5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위적으로 자연회귀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부족 등 현실적 무리라고 판단함에 따라서, 도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집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산촌 생태마을이나 자연생태우수마을, 친환경마을 등과 연계하여 황토체험주택과 황토망당이 가마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 기존의 마을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건강체험센터로 운영할 계획임.

자연회귀마을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와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당초 목적과 달리 지나친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질)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문란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 지난해 유사휘발유 불법유통 단속은 시·군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석유제품 등 품질기준을 위반한 28개 업소를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하였음.

향후 도에서도 검찰·경찰,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유사휘발유 사용자에게 대한 처벌과 차량 피해, 화재사고 등 유사휘발유로 인한 피해를 적극 홍보하여 도민들이 스스로 유사휘발유 사용을 자제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질) 2008년도 교육청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미흡” 판정과 7개 평가분야 중 한 분야도 “우수”로 평가된 분야가 없는 이유와 개선방안은?

답) 2008년도 교육청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일부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부족과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 유발적 문화와 청렴도 취약분야·업무에 대한 개선 노력의 부족으로 교육감 중도퇴진 사태가 악재로 작용되었으리라 생각함.

청렴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09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기획단” 구성하여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상황을 직접 지휘·점검할 계획임.

“맑고 투명한 경북교육 구현”을 위해 전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특히 취약·미흡한 분야와 교육과 학기기술부 지정 부패취약 6대과제 분야 및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조기집행 및 예산낭비·누수 방지”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반부패·청렴 시책을 마련 하여 추진하고 법령·제도상 부패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하여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와 청렴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청렴도와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하겠음.





2009년 4월 1일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통장의 처우개선과 농가주택 지원 확대방안 등

김영만 의원(군위)



질) 도내 이·통장들의 급여와 수당의 상향조정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 대책은?

답) 이·통장들은 행정 최일선에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 오는데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처리하는 한편, 각종 행정시책 전파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명실공히 지방행정과 주민들을 이어주고 있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이·통장들의 급여와 수당 상향문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경비의 성격과 기준액이 정하여진 사항임으로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관련규정 변경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비용이 시군별로 상이한 문제는 현행, 이·통장들에 대한 지원이 각 시군의 이·통장 지원조례에 근거, 시군별 예산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의 차이와 도시와 농촌 등 해당 지역적 성격에 따라 이·통장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상이한 것도 격차가 발생하는 한 요인임으로 앞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이·통장 사기진작 비용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모국제는 과거 이장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었을 때의 관습 및 농경사회의 풍습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항으로 최근,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임.

지금까지 이·통장 도농교류행사 등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통장들을 위한 다양한 사기 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

질) 농가주택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이자율 하향조정과 사업비 배정시기 조정, 융자금조기지원에 대한 방안은?

답) 융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신청량 대비 60%인 1,008동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부담이 없는 주택정비자금을 추가로 확보코자 신청요구하였고, 앞으로도 농가주택 융자금 지원 신청농가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많은 물량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융자금 대출한도 상향 및 금리하향은 '76년도 이래 지속적으로 대출 한도 상향 건의 및 이자율을 하향 건의하고 있음.

사업비 배정시기 조정은 금년에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 2월 중 도비확보 물량 772동 배정 완료하였으며, 주택 개량 융자금 조정은 대출기관인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담보 설정후 대출하므로 타 담보물건이 있으면 사전에 대출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의 경우 준공후 건축물사용 승인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첨부되어야 대출이 가능한 실정임으로 주택 개량융자금 대출 시기조정에 대해서는 농어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와 농협에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건의할 계획임.

질) 댐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방법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분쟁에 대한 대책, 댐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예방 대책은?

답) 댐 건설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최소화를 위하여 댐 건설 시 수차례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쟁이 최소화 되도록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추진하고 있음.

댐건설로 인한 피해 예방책으로는 댐건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소득증진 등을 위하여 도내 화북

담 340억원, 부항담 355억원, 성덕담 3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담주변지역 지원확대방안을 위한 법제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담 주변 지역의 과실류 및 식량작물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수준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판매대금 6%→13%, 생활공업용수 판매대금 20%→33.8%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담주변지역 지속가능 발전특별법』을 의원발의로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상정 중에 있음.

질) 고 김수환추기경의 큰 뜻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는 ?

답) 고 김수환추기경 추모공원 건립사업 추진 지난 2월 16일 추기경께서 선종하신 이후 어린시절을 보내신 군위군 용대리 생가에 많은 추모객이 방문함에 따라 2009. 3. 4.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에서 교구청과 우리 도, 군위군 등 3개 기관이 함께 모여 추기경 기념사업으로 추모공원 건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고 현재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에서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교구청, 도, 군위군이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할 계획임.

질) 청소년 흡연과 음주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방안과 도내 흡연교사 금연 유도 방안은?

답)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참여형 교육과 활동을 바탕으로 흡연예방 체험학습, 금연 교실, 교과목 시간 및 재량활동을 통한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하고, 지역보건소, 흡연 및 음주예방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 활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임.

금연유도방안으로 음주 등 약물 오남용예방 수범학교 61개교(초 13, 중 14, 고 34)를 지정하여 담당교사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개설·운영하고 교사가 금연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교사 금연운동 지속적 전개 및 흡연교사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사 금연교육 프로그램(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에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할 계획임.



의/장/단

C h a i r G r o u p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참석 등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



이상천 의장(포항시4, 한나라)은 1월 10일 경주현대호텔에서 도단위 기관단체장, 여성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경북여성신년교례회」에서 참석하여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1월 15일은 경북도청 강당에서 우수기업경영자 및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노사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경영자 및 근로자들을 축하하였다. 또한 2월 26일에는 제90주년 3·1절을 앞두고 포항과 경주에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의 자택을 잇따라 방문하여 일제 강점기 암울했던 시대에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쳐 공헌했던 애국지사들의 위업에 대해 존경을 표하면서 위문품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3월 11일은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도내 여성지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정기총회 겸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녹색생활실천결의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3월 17일에는 영천시 고경면 고암리에서 개최하는 「봄철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월 19일은 경상북도의회 의정실에서 도의회를 방문한 이인술 대구경북광복회 지부장과와의 환담을 갖고, 애국지사들의 예우와 우리 사회의 구국애족정신 함양에 대해 협의하였다. 3월 21일에는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광역단체장·의장 합동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3월 23일에는 도의회를 방문한 홍세흠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회장(미국)과 이상우 사무총장(미국) 등 임원 5명의 예방을 받고, 경북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4월 2일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지방4대협의체 대표 간담회」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결의문을 전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중앙, 지방간의 상생 협력과 소통강화를 위한 정책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1월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개발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성공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회의를 주재하였고, 4월 9일 경북도의회에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2기 정책자문위원 16명을 위촉하는 자리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상북도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발전 헌신하는 관계자 격려

이상호 부의장(경주시1, 한나라)은 2월 25일 경주월드뷰페에서 개최된 「경주시자율방범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 축사와 함께 지역안정과 밝고 명량한 사회조성에 힘쓰는 자율방범연합회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3월 4일에는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재향군인회 제50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는 재향군인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다.

3월 10일에는 경상북도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된 「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농민권익보호, 복리증진에 헌신하는 농촌지도자 경상북도 연합회에 축하와 격려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다.

3월 28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점프」경주엑스포공연행사 및 엑스포 공원에서 개최된 제9회 신라도자기축제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에 참석, 고령화 시대의 노인일자리사업 중요성 역설

김응규 부의장(김천시2, 한나라)은 1월 7일 경상북도새마을회관에서 거행된 「경상북도새마을회 2009년도 신년 하례식」에서 신년인사를 통해 21세기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새마을 운동의 전개와 새마을정신의 계승 발전을 기원하고 도새마을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3월 3일 의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에 참석하여 고령화 시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실버인력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민간 참여를 호소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3월 20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0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미래를 대비한 물절약 운동의 생활화를 당부하며 참석자 및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월 25일 구미 경북상이군경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상이군경회 도지부 제49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상이군경회원과 유가족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 의회 홈페이지 안내

<http://council.gb.go.kr>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주민 고객 서비스 만족과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친숙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도민의소리난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32회 임시회 부터는 본회의 생방송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지정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 강조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문경시2, 한나라)은 2월 17일 점촌3동 「화합 한마당 웃놀이 대회」에 참석,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 의정에 반영할 동네의 고충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4월 3일 동로면 생달리에서 개최된 「정보화 마을 지정 및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농촌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화 마을 지정으로 지역특산물인 오미자의 생산판로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2009 노인일자리아사업 발대식」에 참석, “노인도 일할 수 있다”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봉화군2, 한나라)은 1월 7일 봉화군 춘양면에서 열린 「봉화군 조기발주 결의대회 및 학산 - 서동리구간도로 기공식」에 참석하여 “도로가 완공되면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농산물 수송 원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봉화군의 성공적인 조기발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3월 4일에는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2009 노인일자리아사업 발대식」에 참석하여 “노인일자리아사업은 노인문제 예방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노인상 정립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안동시 도청이전지원단 현판식」에 참석, 명품도청 신도시 개발에 최선을 당부

권인찬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안동시1, 한나라)은 3월 27일 「안동성좌원 개원 5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센인들의 보금자리인 성좌원을 위해 헌신하시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성좌원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 6일에는 안동시청 제2별관에서 개최된 「안동시 도청이전지원단 현판식」에 참석해 “도청 이전지원단 설치를 축하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 등 명품도청 신도시 개발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3.1문화제」에 참석,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여 성공축제 승화 강조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영덕군1, 한나라)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영해면 일원에서 펼쳐진 도단위 행사인 「3.1문화제」에 참석하여 기념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참석자들에게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민이 화합하는 성공축제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3월 20일부터 개최된 「제12회 영덕대게축제」행사 현장인 삼사해상공원, 강구항, 대게원조마을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관광객에게 지역특산품을 홍보는 안내원 역할을 하였으며, 행사 주최인 영덕군 관계자에게 대게는 타지역에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인 만큼 전국에서 제일 가는 축제로 만들어 잘사는 영덕을 이루어 보자고 제안했다.



「제5회 친환경 작품전시회」에 참석, 자연사랑운동의 중요성 강조

김대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구미시4, 무소속)은 1월 16일 선산읍 소재 농업경영인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구미시농업경영인 제13대, 14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임원들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마을가집으로 구미시연합회를 더욱 발전시켜 현재 농업, 농촌, 농민이 처한 위기를 농업경영인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4월 3일에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열린 「제5회 친환경 작품 전시회」에 참석하여 환경바자회 및 친환경 체험교실을 둘러보고 “인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보답”이라고 자연 사랑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제2회 의성산수유 꽃 축제」에 참석, 축제를 통해 살기좋은 의성 만들기 승화 호소

김만용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의성군1, 한나라)은 3월 17일 안계면 코리아 예식장에서 개최된 「의성군 의용 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회원들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재난과 재해예방에 앞장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봉사단체로 거듭 날 것”을 주문하고 그간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함을 표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에서 7,000여 명의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회 의성 산수유꽃축제」에 참석해 군민들과 함께하며 이번 산수유 축제를 통해 주민화합과 「살기좋은 의성 만들기」로 승화 시켜 나가자고 호소했다.



「지역경제살리기 소방분야 참여방안 간담회」에 참석, 도민 안전에 최선 당부

김수용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영천시2, 한나라)은 3월 17일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산에서 열린 「제64회 식목일 기념 및 범도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무사랑 분위기 조성하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산벚나무 등을 나누어주고 영천을 찾아주신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4월 3일에는 영천소방서에서 열린 「지역경제살리기 소방분야 참여방안 간담회」에 참석하여 도정업무 및 소방행정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역민의 다양한 정책적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 등도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소방행정자문단 위원들과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진단사업 평가회」에 참석, 사업의 안전성 확보와 내실을 당부

김숙향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비례대표)은 3월 20일 경북 보육정보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진단사업 평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그간 사업의 보고를 받고 평가를 진행한 후 향후 사업의 방향에 대해 토론후 “사업의 안전성 확보와 내실을 더욱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3월 12일에는 경북도청에서 포항·구미 도의원 및 관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항·구미 산업 단지 조성 설명회」에 참석하여 현황설명과 함께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청송군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국가 안위에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을 격려

김영기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청송군1, 한나라)은 1월 19일 청송읍사무소에서 개최된 「청송군 재향군인회 정기 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해 “남북이 대치한 가운데 국가 안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원들 에게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2월 13일에는 「진보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해 열심히 배워서 더욱 훌륭한 인재가 되어, 청송은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북능금농협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 유통시설 현대화 강조

김영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군위1, 한나라)은 1월 29일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농업경영인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변함없는 농심으로 농촌을 지키는 회원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하였다.

2월 19일 능금농협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능금농협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경북과수산업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합원 및 능금농협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공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현대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동동 체육회장단 모임」에 참석, 동민의 건강을 위해 체육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

김영택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구미시3, 한나라)은 2월 23일 민방위교육장에서 가진 「구미시 새마을회장 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박동진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관계인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3월 30일 경상북도 교통연수원에서 관내 기관장 및 동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동동 체육 회장단 모임에 참석, 새로 출범하는 임원단을 격려하고 “동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지역을 화합하는데 체육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풍기-단산간 도로 확장 기공식」에 참석, 성공적 조기 발주에 최선 당부

김종천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영주시1, 한나라)은 1월 2일 소수서원 소수광장에서 열린 「풍기-단산간 도로확장 기공식」에 참석, 관광객 증가에 따른 차량지·정체로 교통사고가 빈번하였으나 앞으로 이 도로가 준공되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수송원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하고 “조기발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선남농협 경매식 집하장 개장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변함없는 노력 당부

김지수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성주군1, 한나라)은 3월 11일 「선남 농협 경매식 집하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에게 “주변 여건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더욱 값지다”는 격려와 함께 올해도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3월 23일에는 300여 마을 주민이 동참한 「선남 도흥 보건 진료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노후된 시설을 최신식으로 개제하기까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운영협의회장을 위시한 임원과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였다.



「다산지방 산업단지 정기총회」에 참석, 소득증대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

나규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고령군2, 한나라)은 2월 19일 「고령군 생활개선회 연시 총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생활개선회가 매년 열리는 대가야축제의 행사안내도우미 등 봉사활동과 읍면별 농산물 정보교환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대해 치하하였다.

그리고 2월 24일 오전 11시 다산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다산지방산업단지 정기총회」에 참석, 주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입주기업들이 환경친화적 공단 조성과 수출증대, 농촌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송군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남종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청송2, 한나라)은 3월 6일 「청송군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다.

또한 3월 20일 청송군 현동면 「눌인경노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지역주민들과 같이하며 화합을 다졌다.



「성주 노인 일자리 창출 발대식」에 참석,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강조

박기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성주2, 한나라)은 3월 6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성주노인 일자리 창출」 발대식에 참석하여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로 인하여 일자리가 많이 모자라는데 사회적일자리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월 10일 「성주여성의용소방대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 장비확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농업은 미래전략산업이라고 강조

박노옥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봉화1, 한나라)은 1월 15일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회장단 · 감사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써 세계적으로 식량부족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때에 농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월 10일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7대 · 18대 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농업 · 농촌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촌지도자들이 영농후계인력의 육성을 통해 국가 발전과 농촌신진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라도자기 축제」에 참석, 경주도자기가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

박병훈 통상문화위원회 위원(경주시2 한나라)은 3월 27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일선노인 지도자대회 및 제14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평소 노인복지를 위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인 지도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3월 28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열린 「신라도자기 축제」에 참석하여 흙과 불 그리고 혼으로 빚어낸 신라도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번 축제를 계기로 경주 도자기가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보자”고 강조하였다.



「한국농업경영인 칠곡군연합회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 농업인의 권익신장에 최선 다짐

박순범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칠곡군2, 한나라)은 2월 9일 왜관 낙동강 둔지에서 2,000여 명의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풍년농사, 칠곡시 승격기원 달맞이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군민들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칠곡시 승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25일에는 「한국농업경영인 칠곡군연합회 창립 22주년 기념행사 및 신·구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해 어려울 때 마다 우리 농업인들이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 등반대회」에 참석, 장애우들이 소외되지 않는 세상만들기에 노력 당부

박순열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청도군1 한나라)은 3월 27일 「2009청도소싸움축제개막식」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청도소싸움축제를 세계 곳곳에서 찾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아울러 상설 소싸움장이 조속히 개장되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4월 3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청도지회 주관으로 열린 「지체장애인 등반대회」에 참석하여 “신체적 장애를 극복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장애우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장애우들이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고령투자설명회」에 참석, 대가야 역사와 문화관광자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당부

박영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고령군1, 한나라)은 1월 21일 운수면 유리마을회관에서 성주소방서장 및 기관단체장, 고령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민안심소화기 전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소외계층에 안전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더욱더 따뜻한 농촌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한 3월 31일에는 고령군청 강당에서 개최된 「고령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기업인 및 출향인들에게 대가야역사와 문화관광 자산이 각종 산업기반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부탁했다.





「제3회 동해안 발전 포럼」에 참석,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협력 등 방안 논의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영덕군2, 한나라)은 2월 5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 초광역권 협력과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제3회 동해안 발전포럼」에 참석하여,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되어 국가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는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에 대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덕 영해로타리에서 도민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90주년 도단위 3.1절 기념식」에 참석, 3.1 의거담까지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3.1만세 대행진과 3.18 희생선열을 기리는 추념식을 갖고, 3.1절을 맞아 영해면 일대에서 열린 「영해 3.1문화제」 행사장을 찾아 행사추진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울진국제대게축제」에 참석, 울진대게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방유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울진군2 한나라)은 3월 10일 「원수곡 노인정 준공식」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시설이 마련되었으니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이용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공사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4월 4일 후포항 한마음광장에서 열린 「울진국제대게축제」에 참석하여 “이번 축제를 계기로 울진대게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앞으로 울진대게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한국자총경북여성발전협의회 김천시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적 노력 당부

백영학 통상문화위원회 위원(김천시1 한나라)은 3월 31일 어모면에서 실시한 시승격 60주년 기념 행사로 개최된 「건강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의 걷기운동 실천 동기부여 및 화합을 도모하고 평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일 「한국자총경북여성발전협의회 김천시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협의회가 되어주길 당부하고 신임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한국신장 장애인협회 구미지부 창립식」에 참석, 직업재활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주문

백천봉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구미시1, 한나라)은 2월 19일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구미지부 창립 및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구미지역 신장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직업재활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4월 3일에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자연사랑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5회 친환경 작품 전시회」에 참석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을 몸소 실천하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주당 제1차 중앙위원회」에 참석, 민주당 통합 및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

손덕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비례대표, 민주당)은 2월 6일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클리지에서 열린 「민주당 여성지방의원 워크숍」에 참석,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지역현장 의정활동 모범사례를 공유 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요구를 토대로 공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준비된 역량으로 의정활동 후반기를 맞이할 것을 결의했다.

3월 3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중앙위원의 성원보고 에서 민주당의 통합을 완성시키고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였다.



「영주시 이·통장 회장 취임식」에 참석, 최일선에서 지역민 화합에 최선을 당부

손진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영주시2, 한나라)은 1월 5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기관 및 유관단체장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었으며, 1월 13일에는 겨울철 안전과 치안을 살펴 보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하여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또한, 3월 20일 「영주시 이통장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무보수로 주민을 위하여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원봉사자”라고 강조하면서 “일선에서 지역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칠곡군 새마을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펼치자고 주문

송필각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칠곡군1, 한나라)은 2월 25일 칠곡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 칠곡군연합회 창립 22주년 기념행사 및 신·구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농업인의 중심에서 서서 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2월 26일에는 칠곡군교육문화복지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칠곡군새마을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새마을 정신을 가지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펼치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국연날리기 및 민속놀이 큰잔치 행사」에 참석, 민속고유 놀이 계승 발전에 앞장

안순덕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의성군2, 한나라)은 2월 27일 봉양면 남대천변에서 열린 「전국 연날리기 및 민속 놀이 큰잔치」 행사에 참석하여 경제위기로 시름이 깊은 주민들에게 하늘높이 나는 연과 같이 희망을 가져달라고 위로하고 아울러 우리 민족고유의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3월 19일과 3월 23일 다인면 삼분1리 경로당과 봉양면 사부2리 경로당에서 가진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 준공을 축하하며 건강한 여생을 위해 운동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제3회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 관계자 및 방범대원 격려

윤영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예천2, 한나라)은 2월 20일 호명신협강당에서 열린 「호명신협 제31차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한해 한해 더욱더 발전하는 신협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3월 29일 예천 한천체육공원에서 경북지역 방범대원 1,500여 명이 참석한 「제3회 경상북도 자율방범 연합회 한마음대회」에서 관계자 및 방범대원을 격려했다.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구미지회 복지증진대회」에 참석, 자활의지로 당당히 서 줄 것을 당부

윤창욱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구미시2, 한나라)은 3월 26일 열린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구미지회 복지증진대회 및 정기총회」 행사에 참석하여 시각장애인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자활의지로 당당히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3월 28일에는 구미시 비산동 낙동강고수부지에서 열린 「비산체육공원 개장식」에 참석하여 “이제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체력을 다지고 또한 주민화합의 장으로도 활용가치가 큰 체육공원 개장으로 질 높은 삶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주민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재구 영양군향우회 제17차 정기총회」에 참석, 향우회가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

이상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영양군2, 한나라)은 90주년 3.1절을 맞아 영양군 청미공원에서 지역기관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3.1만세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낭독 및 만세삼창을 하면서 “최근의 국가경제의 위기극복에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모두가 똘똘뭉쳐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3월 26일 대구 문화웨딩에서 열린 「재구 영양군 향우회 제17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고향 영양 발전에 수고하는 향우회원들을 격려하고 재구 영양군 향우회가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울릉관광발전협의회 발대식」에 참석, 울릉도를 국제관광 휴양시설로 가꾸는데 총력

이상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울릉군1, 한나라)은 3월 9일 울릉향군회관에서 개최된 「울릉관광발전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울릉군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조직한 사회단체로서 앞으로 친절과 정성을 다해 울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내형제, 내부도 같이 맞이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으뜸가는 울릉군을 만들어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으로 가꾸는데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21일에는 울릉향군회관에서 있는 「울릉군 바르게살기협의회 2009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지역사회 정화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고하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앞장서서 밝고 명랑하며 깨끗한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이시하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장(문경시1, 한나라)은 3월 12일 문경대학에서 열린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개소식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과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아가길 바라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3월 26일에는 STX문경리조트에서 도지사, 문경시장, 노인 돌봄 생활관리사, 관계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상북도 노인 돌봄 생활관리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산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준공식」에 참석, 경제적이고 실속있는 도민체전 개최 주문

이우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산시1, 한나라)은 3월 7일 경산시 상방동 일원에서 열린 「경산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이번 체육관 준공으로 도민체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토대가 되었고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체전으로 성공적인 체전을 달성하자”고 주문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3월 12일에는 여성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8대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여 신·구 임원들을 격려 및 축하를 하고 여성의 지위와 책임을 강조하며 경산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면민위안공연 및 반공정신 강의」에 참석, 가나안농학교 상주유치 논의

이재철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상주시2, 한나라)은 2월 6일 상주시 내서면 체육회에서 주최하는 「내서면민 화합 웃놀이 대회 및 곶감 품평회」에 참석하여 “명품 상주곶감의 맛과 품질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자”고 강조하고 아울러 주민들과 웃놀이를 통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3월 29일 외남면 외남교회에서 「면민위안공연 및 반공정신강의」에 참석하여 이번 공연이 유가 및 농자재가격 인상, 농산물 가격하락 등 시름에 빠져있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가나나 농학교의 김평인 교장과 가나나농학교의 상주유치를 논의하였다.



「함창향교 춘계석전대제」에 참석, 지역의 정신적 기반 마련하여 지역발전 계기가 되길 당부

이종원 농수산위원회 위원(상주1, 한나라)은 3월 3일 「상주 함창향교 춘계석전대제」에 참석하여 지역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하고, 지역이 결속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3월 17일 함창읍 「구향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지역민들의 휴식공간과 회의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청도 성공시대전략 간담회」에 참석,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기로...

이준호 농수산위원회 위원(청도2, 한나라)은 2월 11일 청도군민회관에서 열린 「청도성공시대 2020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하 및 격려를 하였다.

또한 3월 5일 청도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청도성공시대전략에 따른 도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청도군수, 군의장, 군의원 등이 함께 청도 성공시대 세부전략에 대하여 토론하고 앞으로 청도군 발전을 위해 서로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로 집행부와 공조체계 구축 다짐

이현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예천군1, 한나라)은 1월 22일 대구방송(TBC)에서 방영된 「신년 100분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향후 도청이전에 따른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국회의원, 시장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쟁을 펼쳤다.

또한 4월 7일에는 도의회에서 구성된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300만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백년대계인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집행부와 공조체계를 확고히 하여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했다.



「2009년 신년참배」에 참석, 지역발전 기원 다짐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시3, 한나라)은 1월 2일 기축년 새해를 맞아 포항시 덕수동 수도산 충혼탑에서 포항시 주요기관단체장 및 시·도의원 등과 2009년 신년참배에 참석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분향·추모하고 새해 지역발전 기원과 기축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3월 1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도지사, 도의원, 포항, 구미시와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구미5 국가산업단지 조기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MOU)과 추진상황보고회」에 참석, 우리 도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기간이 길고 기반시설인 공업용수와 하수처리장 및 진입도로 등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국고지원과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및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협력하여 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신라도자기축제」에 참석, 경주가 문화체험 장소로 거듭나는 분위기 조성을 하였다고 강조

장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3월 28일부터 6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열린 「신라도자기 축제」행사장에 참석,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번 축제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최고의 문화체험장소로 거듭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3월 31일 황실예식장에서 개최된 「경주지역통합발전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120명의 지역발전에 관심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경주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강조하는 취지를 표명했다.



「제64회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포항시2, 한나라)은 2월 2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경북북부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인들을 격려하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출산이 지역을 살리는 최고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월 13일에는 신평면 냉수리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식목일 맞이 봄철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 시민들과 함께 나무 심기를 하면서 소중한 자연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산림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영농교육에 참석, 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에 매진 당부

장병익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군위군2, 한나라)은 1월 농한기에 개최된 우보외 4개면에서 개최된 영농교육에 참석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꿋꿋이 일하는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농촌 출신 의원으로써 살기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에 관련된 정책 창출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한 3월 26일에는 의흥안전센터에서 개최된 의흥면을 비롯한 5개면 6개대 「의용소방대 친선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지역안전을 위해 힘쓴 대원들과 함께 어울려 담소와 운동으로써 노고를 위로 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라면 화합잔치」에 참석, 글로벌 경제위기를 화합과 단결로 극복하자고 당부

장세현 통상문화위원회 위원(포항시1 한나라)은 2월 25일 「송라면 화합잔치」에 참석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다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하였다. 3월 2일 「신광면 체육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체육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였으며, 아울러 체육발전과 지역발전에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새마을 읍진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새마을지도자 역할의 중요성 강조

전찬길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울진군1, 한나라)은 1월 16일 「울진군 북면발전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해 “북면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신임회장단 취임을 축하했다. 또한 2월 23일에는 「울진군 지체장애인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장애우들의 재활자립 및 복지 증진과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3월 6일에는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새마을 읍진군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국농업경영인안동시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 선진농업 구현에 앞장 당부

정경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안동시2, 한나라)은 2월 4일 안동시 수상동 농업인회관에서 안동 시장을 비롯한 농업인관계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농업경영인회 안동시 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글로벌경제위기의 한파에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단체의 화합과 결집,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아 지역 농업 발전과 선진농업 구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3월 6일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낙동강 살리기」 정책토론회에 지역 국회의원, 정부관계부처와 시민 단체, 전문교수들과 함께하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정비 사업으로 훼손된 문화·생태·환경복원과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길을 찾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를 가졌다.



「제2회 울릉도 눈꽃 축제」에 참석, 관광객 유치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

정무웅 농수산위원회 위원(울릉2, 한나라)은 1월 16일 「울릉도의 신비, 눈꽃속에 피는 낭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2회 울릉도 눈꽃축제」에 참가하여 “다양한 축제행사를 관람하고 관광객유치 홍보활동에 힘써 울릉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월 5일 「울릉군새마을지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새마을지도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재향군인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도의회 역할 설명

조동만 농수산위원회 위원(영양1, 한나라)은 1월 21일부터 1월 22일(2일간) 일월면, 수비면, 영양읍을 영양군수와 함께 읍면을 순방하여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경북도의 각종 추진사업 및 도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또한 1월 23일 「영양군 재향군인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도의회의 역할 및 2009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2월 9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영양군 청우회가 주관하는 「2009 민속웃놀이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군민들의 각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였다.



「2009 결혼이민자 한국어 및 생활문화교육 개강식」에 참석, 결혼이민자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

채옥주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2월 24일 포항시청에서 1,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경북본부 창립대회」 참석해 “앞으로 저출산 문제와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의 법과 제도,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경북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밝혔다.

또한 3월 4일에는 포항여성문화회관에서 300여 명의 결혼 이민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09 결혼이민자 한국어 및 생활문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원활한 언어소통과 요리, 전통 예절 등 우리 생활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더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했다.



「구미청소년도서관 기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 격려

최윤희 통상문화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2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7대 회장단취임식에서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2월 27일에는 경북댄스스포츠경기연맹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4월 3일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여성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구미청소년도서관 기공식, 구미근로자문화센터기공식, 노사민정 산업평화 선언식, 국가산업단지 추진상황 보고대회, 경북여성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09 새마을운동 활성화다짐대회」에 참석,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영천시1 한나라)은 2월 27일 영천 영화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가진 「도전 주부119 골든벨 퀴즈」 대항전에 참석하여 직접 퀴즈문제를 내면서 “소방안전관련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주부들이 앞장서자”고 당부하였다.

4월 2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09 새마을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새마을 운동을 21세기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 배움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길 당부

황상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경산시2, 한나라)은 3월 25일 경산시 노인회관 강당에서 있는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의 「노인대학 제15기생 입학식」에서 축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변화가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려는 배움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 즐겁고 재미나는 대학생살로 노후생활을 활기차게 보내고 유종의 미를 거두길 당부했다.

4월 1일 경산시 「용성농협조합장 이취임식」에 참석, 조합원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농촌,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하는 한편, “용성농협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서 농산물 제값 받기, 농자재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연합일보 | 2. 16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6건 조례안 심의·의결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춘)는 16·17 일일간 산업단지 개발촉진법 간소화와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촉진법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경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이제까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산업단지개발에 2~3년이 소요,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경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정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내의 우수한 건축물들을 선정·시상하는 '경상북도 아름다운 건축문화상'을 신설, 향후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2004.12.23)으로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존치 이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의 옥외광고물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마련해 불티가 생기는 설비 등에 사전 화재 예방조치를 의무화 하고 불을 피울 시 사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차량 오인 출동케 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에 한하여 이통탱크로부터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소방위원회가 이제까지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각종 규제 등을 과감하게 풀어 금번 6건의 조례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권기자

대구일보 | 2. 16

도의회, 공무원교육원 개선위해 타 지역 '현장 의정'

경북도의회가 지역의 낙후된 공무원 교육 기관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우수 기관의 벤치마킹(bench-marking)에 나선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회 임시회를 맞아 15일 정오 전국을 돌러보고 하 도공무원들이 기간 동안 원들은 현도원, 지방행정원도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연수·편의 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벌인다. 도의회는 이들 우수 기관들의 경영 방식 등을 분석해 도공무원교육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비민간기자

경북도민일보 | 2. 18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농수확보 지원사업들 추진중인 의성군 덕촌면 세촌리 대형 양반관정 시공현장을 찾았다.

농가 '겨울가뭄' 시름 던다

도 농수산위원회 현장확인
재배농가 방문...의견 수렴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

장 김기춘)는 18일에는 경북의 대표농산물이자 수출차량 브랜드인 '대일 리사리'의 전문 산별·포장 선과 장인 안동청과물품처리장을 방문하여 수출차량 선별처리 현황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조기에 완료되도록 원주시·도·에너지부·환경에너지과

경북매일신문 | 2. 17

경북도의회, 숨가쁜 의정활동

식수난 겪는 영덕지역 찾아 가뭄실태 점검
산업단지 조례 간소화... 타지역 벤치마킹도

경북도의회 제23회 임시회 의정활동이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다. 각 상임위가 경북도 업무보고를 끝으로 현직활동에 나서는 민생청거에 분주하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6·17 일일간 2009 경북도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문제점을 짚는다.

▲교육환경위원회 교육환경위원회는 18일 가평대원을 견고 있는 영덕을 찾은 후 17일 모형을 방문한다.

이날 백천봉 교육환경위원장과 위원들은 곡성군 생룡소수단을 견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 생활 실태와 급수대책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이번 방문은 가뭄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기위해서다.

교육환경위원회는 영덕군청 회의실에서 김병국 영덕군수로부터 가

동지역 식수대책 추진상황을 들은 후, 영덕읍 화계리 오십천 하수상관을 확인하고, 재한급수 지역인 용수면 보물리 일반관정개발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17 일일간 경북도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경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이제까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산업단지개발에 장기간(2~3년)이 걸려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5개월 이내에 인 허가 절차가 완료돼 공강수요에 따라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가 18일 가평대원을 방문하여 가뭄실태를 보고 받고 있다.

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공무원교육원 발전방안을 찾기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강원 등 타시 도를 돌았다.

공무원교육기관에 대한 우수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는게 이유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현대인재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원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원도인재개발원을 차례로 둘러보고 인재

일간대구경북 | 2. 27

大邱慶北

2009년 02월 27일 금요일 003면



"예우포토 조성·보훈문화 확산 최선"

이상천 의장, 3·1절 앞두고 애국지사 위문

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26일 제90주년 3·1절을 앞두고 경북도내 생존애국지사의 가정방문, 감사의 뜻을 표하고 위문했다.

이날 이상천 의장은 감사의 서신 전달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고도성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라며 "이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던 3·1운동의 정신과 면면

히 이어져 오는 민족혼과 역동적 기백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룩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 주신 애국지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우포토조성과 보훈문화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존경의 마음과 건강을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북도내 생존하고 있는 애국지사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거주하는 이인술(남, 84, 광복회대구경북연합지부장) 씨를 비롯한 10명이다.

김영권기자

대구일보 | 3. 20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8~19일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를 방문, 의회 운영시스템과 우수 시책을 견학했다.

경북도의회, 부산시 경남도의회 운영시스템 벤치마킹

현안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

경북도의회가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의 우수 시책과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유봉)는 18~19일 2일간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를 방문, 의회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22회 임시회를 앞두고 다른 시·도의회의 특유와 상임위 구성, 의정활동 운영 방식을 비교, 우수 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했다.

도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의 우수 시책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 방안 등 현안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민희기자 min@idaegu.com

경도일보 | 3. 26

도의회, 전국 첫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5일 제2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차 의회)에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발의와 건을 상정해 가결한다.

이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로 농어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가치증진,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유통확충과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상설 상회로 채택되었다.

이 조례안은 농수산물에 분류된 농 수산물과 가공품이 지정된 수출품에 해당되는 농 수산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수산물 수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흥구 기자

관심=김정환 기자

경북일보 | 3. 27

"서민 경제 살리기에 중점"

이우경 여결위원장, 추가경정예산 심사 돌입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 26일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돌입한 경북도의회 이우경(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위원장은 "예산보다 3개월 앞당겨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살리기와 소상공인 보호지원 등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불 가늠 대책 및 재해예방, 농어촌 경쟁력 강화 사업과 SOC분야 마무리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400억원을 발행했는데 이는 당초 250억원에서 150억원이 많은 규모다"며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해서라도 중소기업 지원과 도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채 추가발행을 협



의한 것으로 도의회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하게 될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4358천157억원으로 기정예산 4358천796억원에 비해 2천391억원(0.52%)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의 총예산은 2307천15억원으로 기정예산 2355천212억원에 비해 1천833억원(7.22%)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주경은 26일 경북도 본청 실행계획 심사를 시작으로 30일 도교육청 심사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심의회를 거쳐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방송특가사 jang@jnews.co.kr

경북일보 | 3. 25

지역민 일자리 창출·예산조기집행 촉구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관광아카데미 운영비 1천만원 감액 질책

"불요불급한 경상권에는 줄이고, 주권 장려 예산을 집행하라"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예산 조기집행을 촉구하는 의원들이 잇따랐다.

농수산위원회와 관광산업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안)의 원안 이면 주경은 경제동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권에는 줄이고 국비 등은 최대한 확보해 예산안 예산안 안건 관련 인력 확충과 재원과 대안이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주경이 성립되는 즉시 집행해 국비와 많은 관광개발을 유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현(자유) 의원은 국비의 관광개발사업(주요사업) 추진에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해당 지역 업체 활용과 지역주민 고용 등 경제살리기



경북도의회는 제22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집행부에 일차로 상충과 예산조기 집행을 집중 촉구하기로 했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유봉(국민)·안순덕(의성) 의원은 관광아카데미 운영비 1천만원 감액과 관련, 정부관광개발 지역에 유치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대 오해와 감액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의 건설도시법제도에 대한 심사서 장수득(노항) 의원은 각종 공사 발주와 관련, 앞으로는 매년 4백만 원에 한

정시 설계용역을 계약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도청기에 설계용을 실시하고,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 연초에 공사발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편성방법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경화(고령) 의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촉구한 것으로 연월 보도하고 있는 조기집행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지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지자체위원회의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심사서 김숙환(보함) 의원은 복지예산이 기동성 운영사업의 경우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 공무원이 연봉을 받으면서는 것은 대표적인 인사행정이지만 행정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특가사 jang@jnews.co.kr

대구신문 | 3. 28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독도, 국토수호 용어 사용율"

경북일보 | 3. 31

경북위, 주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월정수당 2% 반납...일자리 창출 앞장

이상천 도의회의장, 출입기자 간담회

이상천(사진) 경북도의회의장은 3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도의원 월정수당 2%를 반납,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단의료복합단지 분리지정 반대 상영서를 발표한 배경을 설명한 후 독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55명 진의원이 동결된 위기관력에 양심적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용역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경북도의회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경제 위기관력에 지방도의

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반납액은 의원 월정수당 25만2천 원의 2%인 5만2천840원이 되고, 55명이 합하면 총 288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된다.

이와 앞서 도의회는 오전 11시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위 청단의료복합단지 분리지정용역계약에 대해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상영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청단의료복합단지를 사실상 해체하고 대우 용단지와 의료기단지로 분리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당초 사업하지 및 청단의료복합단지 특



별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의 의원들과 의회기 기개발이 용·복합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책적 추세에도 어긋나며 세제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독도특별위원회의 관련해서는 독도의 심화적 지배를 공고화하고, 심화적 지배를 넘어 영토수호, 자원의 체계적 대처하기 위해서 독도 연구·홍보를 강화하고 임시적 홍보에서 국제적·체계적·지속적 홍보로 전환키로 했다.

이흥구 기자 jang@jnews.co.kr



대구신문 | 4. 1

경북도의회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

경북도의회는 1일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에 대해 도정질문을 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봉화군에 있는 송부매립장의 문제점과 행정안전부의 실효성, 전기 없는 자연화귀마을 조성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송부매립장 침출수 처리시급



△권영만 의원 (봉화·사진)은 봉화군에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일반매립장이 1996년 12월부터 2001년 11월 종료까지 5년간 소각잔재물과 폐수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 21만 3천t을 매립한 후 침출수가 연간 300여t씩 발생하면서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따졌다.

권 의원은 매립업체가 사실상 부도상태로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만

약 매립장의 용벽이라도 무너질 경우 경기도 등 전국에서 반입된 사업장폐기물이 유출되면서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가 허가를 내준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질타했다.

“행정안전 일과성 행사 그쳐



△김지수 의원 (성주·사진)은 경북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인턴을 80여명 뽑아 각 부서에서

서류복사, 간담부름, 잡일 등 단순 일을 시키고 있다면서 행정인턴제가 그저 임금을 나눠주는 산책성, 일과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가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위적으로 ‘전기 없는 자연화귀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따지고, 그 재원으로 실제로

전기 없는 도내 10여 곳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체험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시책변경 의사가 없는지를 물었다.

“농어주택 개량 용자금 부족



△김영만 의원 (군위·사진)은 도내 농어주택 개량 용자금 배정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천7

09가구가 신청해 지원은 874가구(51%)에 그쳤으며 개량용자금이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이유와 개선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건설도 중요하지만 댐으로 인해 농작물에 대한 피해와 재해단지 변경, 작물전환 등이 포함된 피해예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대구신문 | 4. 7

박정희기념관 건립 다시 고개

최윤희 도의원 등 임시회 5분 발언서 주장

박정희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경북도의회 최윤희 의원(비례대표)은 7일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할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 기념관을 고향 구미에 건립, 기념사업의 근본 취지를 드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경북도가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국비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박순열 의원(청도)도 5분 발언 유인물을 통해 청도소싸움경기장 개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약 90억원의 개장준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경북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희 의원



박순열 의원



전찬길 의원

박 의원은 또 타 시도의 경우 사업의 초기에 일정기간 레저세를 감면해 지역의 레저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청도 상설 소싸움경기장에도 차원의 레저세 감면조치를 주문했다.

전찬길 의원(물진)도 5분 발언 자료를 통해 4·29 도교육감 보궐선거는 선거 보편비용만 186억원, 후보 개인

당 제한비용 14억원을 고려할 때 20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많은 주민들의 선거참여를 제언했다.

특히 전 의원은 4월 중순부터 교직원들의 임정종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우려된다면서 교원과 교육공무원들의 양식에 의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훈기자



도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자치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